

박 사 학 위 논 문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2011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전 공

김 영 옥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권해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Volunteer Activity on Social Capital Formation

2011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영옥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권해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Volunteer Activity on Social Capital Formation

위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행 정 학 전 공

김 영 옥

김영옥의 행정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행정학전공

김 영 옥

자원봉사활동은 오늘날 사회적 참여의 여러 형태 가운데에도 대표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지역사회의 복지활동을 강화할 뿐 아니라 중고령층의 삶을 개선시켜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는 항상 복지자원의 부족을 경험해 왔고, 이에 대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 왔다. 특히 중고령층의 경우 활발한 사회참여가 여러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중고령층의 시민적 사회참여의 한 형태로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참여는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경험이 서구와 비교하여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봉사의 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에 세 가지 변수를 선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이 세 가지 사회적 자본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의 개념, 의의 및 관계 등에 대해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념적 도식과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법령과 제도들에 대해 분석한 후 제도상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빈도와 기간, 참여유무 등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종속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등 3가지 변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도식을 통해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이러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혹은 정책적 요인들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혹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61세에서 65세 연령층이 자원봉사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의 경험을 사장시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차원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참여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계기는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즉 이타적 동기에 의해서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활

동단체의 정기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다음으로 많았는데 중고령층 단체들의 활동에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혼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에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단체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접근성이 더 크기 때문에 권장되어야 한다.

셋째, 자원봉사 참여정도는 한달에 2~4회가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2~3회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즉 1주일에 한번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이 대부분이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 참여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자원봉사는 처음에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참여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자원봉사 참여분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취미여가활동 보조가 가장 많았지만, 재가복지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들도 많아서 노-노케어 등 새로운 자원봉사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는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노년의 여유시간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자원봉사라는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가 참여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비교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중고령층과 비교하여 사회적 자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과 그렇지 않은 중고령층의 사회적 자본의 지표를 비교

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의 사회적 자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의 경우 사회적 자본 형성이 전체 국민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층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애정이 더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원봉사의 활동여부와 상관없이 중고령층은 가족에 대한 신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정책결정과정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원봉사 참여의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기간과 참여빈도를 독립변수로 한 분석에서도 자원봉사의 영향력이 다른 요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와 대인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에서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대인신뢰와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가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대인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를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분하여 이타적 동기의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사회적 자본이 더 높을 것이라는 논의는 대체로 기관신뢰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자원봉사활동, 사회적 자본, 사회참여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2. 연구 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논의	7
제 1 절 자원봉사의 개념과 관련 이론	7
1. 자원봉사의 개념과 가치	7
2. 자원봉사이론	11
3. 노인자원봉사의 선행 연구분석	17
제 2 절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논의	20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21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29
3.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기능	36
제 3 절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	46
1.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	46
2.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들간의 관계	52
3.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53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56
제 1 절 연구모형	56

1. 연구모형	56
2. 조사도구 및 설문구성	58
3. 조사대상	63
제 2 절 가설의 설정 및 분석방법	65
1. 본 연구의 가설	65
2. 분석방법	69
 제 4 장 연구의 분석결과 및 논의	71
제 1 절 노인자원봉사활동의 국내외 비교	71
1. 우리나라 자원봉사현황	74
2. 외국의 자원봉사현황	74
3. 국내 노인자원봉사 추진 체계	76
제 2 절 기초 통계분석 결과	83
1. 응답자의 연구통계학적 특성	83
2.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활동특성	85
3. 사회적 자본 수준	90
제 3 절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95
1.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평균차이 검정(가설 1, 2)	95
2.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가설1, 2)	98
3. 자원봉사활동 동기와 분야별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가설 3)	102
4.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 변수들의 경로분석	106
제 4 절 분석결과 종합 및 논의	110
1. 중고령층의 사회적 자본 수준	110
2. 가설검정결과 종합	111
3.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의 구조모형	114

제 5 장 결론	115
제 1 절 분석결과의 요약	115
제 2 절 분석결과의 함의	119
【참고문헌】	121
【부 록】	131
【Abstract】	139



【 표 목 차 】

<표 2-1> 자원봉사 동기에 관한 이론	17
<표 2-2>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차이	24
<표 2-3> 사회적 자본 개념의 비교	27
<표 3-1> 박희봉·김명환(2001)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59
<표 3-2> 소진광(2003)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59
<표 3-3> 정기환 외(2006)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60
<표 3-4> 홍영란(2007)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	61
<표 3-5> 분석변수의 설정	63
<표 4-1> 연도별 연령대별 1년간 자원봉사자의 비율	72
<표 4-2> 60세 이상 노인 중 자원봉사활동 경험	72
<표 4-3> 전국 지역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현황	73
<표 4-4> 미국의 노인 자원봉사자 비율	74
<표 4-5> 영국의 노인 자원봉사자 비율	75
<표 4-6> 캐나다의 노인 자원봉사자 비율	75
<표 4-7> 일본의 노인 자원봉사자 비율	76
<표 4-8> 응답자의 연령분포	83
<표 4-9> 응답자의 성별분포	83
<표 4-10> 성별과 연령 비교표	84
<표 4-11> 응답자의 학력분포	84
<표 4-12> 응답자의 소득분포	85
<표 4-13> 자원봉사경험의 유무 빈도분석 결과	85
<표 4-14> 자원봉사 참여자 성비	86
<표 4-1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자 수	86
<표 4-16> 자원봉사 참여 정도	87

<표 4-17> 자원봉사활동 참여기간	87
<표 4-18>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	88
<표 4-19>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89
<표 4-20>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89
<표 4-21>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90
<표 4-22> 조사대상자의 신뢰 변수의 항목별 기술통계분석	91
<표 4-23> 조사대상자의 호혜적 규범 변수의 항목별 기술통계분석	92
<표 4-24> 조사대상자의 네트워크 변수의 항목별 기술통계분석	92
<표 4-25> 사회적 자본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94
<표 4-26> 신뢰 항목에 대한 자원봉사 유무에 따른 차이	96
<표 4-27> 상호 호혜적 규범의 평균차이 분석결과	97
<표 4-28> 네트워크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98
<표 4-29>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99
<표 4-30>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기관신뢰에 미치는 영향	100
<표 4-31>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101
<표 4-32>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호혜적규범에 미치는 영향	102
<표 4-33> 자원봉사 동기별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	104
<표 4-34> 자원봉사 동기별 사회적 자본변수 요인점수 평균 비교	105
<표 4-35> 자원봉사 분야별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	106
<표 4-36>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경로분석결과	108
<표 4-37> 신뢰항목 조사결과 비교표	110
<표 4-38> 상호 호혜적 규범 항목의 응답결과	111
<표 4-39> 네트워크항목 응답결과	111
<표 4-40> 분석결과의 요약	113

【 그림 목 차 】

<그림 III-1> 분석모형의 설정	56
<그림 IV-1>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 변수의 경로분석결과	109
<그림 IV-2>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 변수의 구조모형 결과요약	114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원봉사활동은 오늘날 사회적 참여의 여러 형태 가운데에도 대표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지역사회 복지활동을 강화할 뿐 아니라 중고령층의 삶을 개선시켜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는 항상 복지자원의 부족을 경험해 왔고, 이에 대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 왔다. 특히 중고령층의 경우 활발한 사회참여가 여러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중고령층의 삶의 입장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는 사회적 역할을 회복시키고 정체감을 강화하여 개인의 삶의 의미를 고양하고 사회통합의 기제를 통하여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특히 자원봉사를 통한 활발한 참여는 고령사회에서 중고령자 개인과 지역사회 양자에게 이득이 되는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고령층 자원봉사가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때문에 노인전문가 및 노인정책 전문가로부터 중고령층 자원봉사활동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자원봉사포럼, 2009).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의 고령화와 더불어 다양한 성장배경과 경력, 욕구를 가진 노인 인력의 생산적인 활용방안의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되었다. 인구의 고령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으로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노인의 개인적 성취와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Luoh & Herzog, 2002).

고령화 사회에서는 중고령층의 시민적 사회참여의 한 형태로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전체사회에 중고령층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활용을 통한 자원봉사의 촉진은 정책적으로 의의가 적지 않다. 시민참여는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고 주민참여의 민주 사회를 앞당겨 시민의 복리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은 시민의 협력행위와 신뢰와 같은 규범의 확산을 통해 사회집단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정치안정, 경제발전, 사회복지 등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연구되어 그 적용분야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아동문제,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 등에도 관련되어 발생률을 감소시키기도 한다(Crosnoe, 2004). 따라서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중고령층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만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일단의 자원봉사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어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다(Wilson, 2000). 그렇지만 다른 한편 자원봉사는 사회참여이고 사회참여의 증가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조직적 요인 등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증가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자원봉사 및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자원봉사의 순기능이 형성되면 그것이 곧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역사적, 조직적인 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까지 시민사회의 경험의 서구와 비교하여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자원봉사의 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고령층의 경우 전쟁과 경제난을 겪어 오면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되지 못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에 세 가지 변수를 선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이 세 가지 사회적 자본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다수의 자원봉사자 관련 연구는 개인차원의 만족도, 참여요인, 활용방안 등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자원봉사 참여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고령층의 연령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과 UN의 고령자 정의를 감안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분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을 55세 이상 성인으로 정의하였다¹⁾.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의 개념, 의의 및 관계 등에 대해서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념적 도식과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법령과 제도들에 대해 분석한 후 제도상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빈도와 기간, 참여유무 등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종속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등 3가지 변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도식을 통해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연령층이 2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55세 이전까지는 70%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참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55세 미만을 청장년층으로 구분한다. 55세 이후에는 경제활동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중고령층으로 분류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넷째, 이러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혹은 정책적 요인들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혹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와 이론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개념적 도식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분석을 통하여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에 대한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을 토대로 개념을 구성한 후 다중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먼저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서울시 23개 자치구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한 후 각각 3개구씩 총 9개구(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9개 자치구별로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조사대상 노인자원봉사시설들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시설별로 조사대상을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하였다. 그런데 조사대상 중 자원봉사 참여자의 경우에는 같은 시설에서 같은 분야의 자원봉사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자원봉사 참여자 이외에 미참여자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원봉사의 개념과 의의,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와 성과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개념과 구성요소, 형성과 기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고, 4장에서는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자원봉사의 개념과 관련 이론

1. 자원봉사의 개념과 가치

1) 자원봉사의 개념

자원봉사라는 용어는 1930년 세계 사회사업가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종류와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봉사를 받는 대상자들 또한 다양하다(황정향, 2007). 즉, 자원봉사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국가, 사회, 학자에 따라 활동분야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정의도 다양하다(김윤동, 2006).²⁾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인간존중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타심의 실현과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박태영, 2004).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자원봉사는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

2) 자원봉사를 나타내는 Voluntarism은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욕망을 나타내는 라틴어 볼룬투스(voluntas)에서 기원한 것이다. 볼룬투스(voluntas)는 국가나 어떤 조직 또는 개인들의 강압에 의하지 않는 자발적 행동을 말하는데, 이는 선, 인간애, 정의 등의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반대급부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하는 행동을 말한다.

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1997).

또한 미국사회사업협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집단·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영향을 예방·통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사의 다양한 조직 활동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일섭(1995)은 '자원봉이란 오늘날 민주복지 사회의 한 성원으로 생활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또 사회발전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이며, 서로가 존엄성을 갖는 평등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부상조적 연대정신을 발휘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했다(최일섭, 1995).

이와 같이 자원봉사 개념에 대한 정의는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공동의 행복을 지향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그 특성은 자발성, 이타성, 무보수성, 실천성, 지속성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Brundney, 1998).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란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경제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승희 외, 2007).

이상의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통제, 개선하려는 여러 조직 및 기관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강제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려는 개인적 집단적 행위와 활동으로 이타주의, 헌신, 자유의지, 학습, 경제적 무보수성, 조직성, 심리적 이득, 희생, 과정성, 생활성, 공공성, 복지성, 개척성, 계속성, 연대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보수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는 비공식적인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다는 어떤 공식조직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 또는 개인, 집단(가정포

함), 지역사회 문제를 치료하고 예방하며, 공동복지 목표를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에 반대급부(보수, 지위, 명예와 같은 교환조건)없이 자발적으로 협력 또는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라고도 정의한다(조휘일, 1988).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순한 보호활동의 차원을 넘어, ‘공동참여에 의한 공동의 복지’를 추구하고, 노년기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성공적 노화를 성취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통합과 정상화(social integration and normalization)를 꾀하고자 하는 거시적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이금룡 외, 2009; 이인수, 2001).

2) 중고령층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현대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청장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 비해 기능이 현저히 감퇴하는 중고령층은 50대 중반이 지나면서 맞게 되는 이른 정년으로 인해 직업을 통하여 획득했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상실된다. 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의 지위의 저하를 경험하며, 기능의 저하로 인해 활동영역까지 제한받게 된다. 이렇듯 사회로부터 점차 고립되어가는 중고령층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주민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Fischer와 Schaffer는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노인의 잠재적 생산력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 둘째, 노인층에게 생산적인 노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공공책임이라는 것, 셋째, 노인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에 의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넷째,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지와 투자는 우리사회와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들어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옥희(1996)는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이 수행할 의무라는 것,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노인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역할 상실에 대처할 수 있고,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은 노인의 자연스러운 욕구중의에 하나이기 때문에 노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덕(1997)은 여가를 강요당하는 노인들에게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할 상실에 대처할 수 있으며, 노인의 잠재적 생산력은 사회적·경제적 자원이고, 노인 자신에게 자기성장의 기회 뿐 아니라 사회의 노인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으며, 노인에게 생산적 노화를 위한 기회 제공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들을 근거로 중고령층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로 인하여 여가를 강요당하고 있는 중고령층에게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역할상실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중고령층의 잠재적 생산력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하나로 사회자원의 합리적 관리에 의한 국력배양이 요구되고 있는 복지사회에서 중고령층 자원봉사활동은 가장 효율적인 자원동원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이 새로운 복지영역으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지역사회로 구성되는 복지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고령층복지가 더 이상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중고령층에게 생산적인 노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중고령층 자신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고령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2. 자원봉사이론

자원봉사 동기에 관한 이론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시각이 다른 이론을 중심으로 5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대이론

기대이론은 가치이론, 수단성이론, 유의성이론으로 불리는 것으로 1964년 Vroom이 체계적으로 완성하였다(최은숙, 2005). Vroom(1964)에 의하면 개개인은 사고와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행동의 본능이론을 거부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일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그 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길 때 그 일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안은하(2005)는 노인자원봉사활동과 Vroom 이론을 보면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자신의 기대에 상응하지 못할 때 활동을 계속하려는 동기는 감소할 것이고, 자원봉사자를 계속 프로그램에 머물게 하려면 봉사업무의 수준과 성격이 그들의 기대에 적합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2) 동기이론(포괄이론)

인간행동을 다루는 동기이론은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나눌 수 있는데, Francies(1993)에 의해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업적인 일의 상황에서는 각 개인이 기본적인 행동의 동기를 이기적인 동기로 볼 수 있으나 자원봉사의 상황에서는 이타적 동기를 중시동기로 볼 수 있다 (임정순, 2004). 김향숙(2007)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각 개인의 동기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고 동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알맞은 보상체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3) 지속이론

지속이론에 의하면 중고령층의 성격유형은 고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더불어 중고령층 각자의 개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중고령층에게 동일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권유하거나 같은 형식으로 참여하기를 강요한다면 설득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에서는 발달심리학적 입장에서 노화를 관찰하며 생활주기(life cycle)의 제 단계에서 발견되는 계속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성장함과 더불어 습관이나 일정한 선호 등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성년기에 활발한 활동을 유지해 온 개인들은 노년기에도 유사한 수준의 사회참여활동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원봉사란 적극적인 사회활동이라는 생활양식의 연속적인 대체활동이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부터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이었던 사람은 노년기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며, 항상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이를 지속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평생을 두고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유형을 지켜나감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김미혜, 2006).

그러므로 자원봉사활동을 인생의 초기부터 관여해 온 노인들의 경우는 과거부터 지속해온 연속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전 생애에 걸친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신해섭, 2002). 지속이론에 의하면 노인의 건강이나 재정적 문제들, 기타 자원봉사 활동기관의 환경을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로 들고 있다.

4) 활동이론

Havighurst와 그의 동료에 의해서 처음 주장된 이론이며 그 후 Lem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공식화 되었다. 활동이론이란 생물학적 측면과 불가피한 건강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노인은 근본적으로 중년기 때와 같은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어 노년기에 여전히 활동하고자 한다는 것이다(신재명, 2003).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의하면 개인은 중년기 또는 노년기 등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사회활동을 유지하도록 기대한다. 중장년기에는 직업활동을 통하여 활발한 사회참여를 수행하는 반면, 퇴직 후 중고령층에는 소득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되 직업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종교활동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중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은 궁극적으로 중고령층의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중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으며, 중고령층은 자원

봉사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참여기회와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동시에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운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능력감이 향상되므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중고령층이 겪고 있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변화과정을 고려할 때 활동이론은 사회적 활동 참여 정도와 중고령층의 생활만족도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고령층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중고령층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는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중고령층이나 은퇴자들은 자원봉사를 통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5) 교환이론

이타적 행동을 보상과 관련시켜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해석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Homans(2006)에 의해 제기되었다. 사회적 교환이론은 어떤 사물이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한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어떤 사물이나 행위가 자발적으로 옮겨간다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이론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가치 있는 것의 주고받음, 즉 교환을 통하여 사회생활이 지속된다고 보는 시각이다(정희영, 2007; 27).

교환이론(exchange theory)에 따르면 사회적 행동이란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활동의 교환이라 정의된다. 대인관계는 사람들 사이에 보상을 반복적으로 교환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교환자원의 가치와 교환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가치를 인정받

을 수 있고 매력적인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이 노년기에 이르면 대인 관계나 보상관계 교환에서 불균형이 초래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중고층의 문제는 중고령층이 갖고 있는 교환자원의 가치가 저하됨으로써 교환관계에서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러한 불균형은 중고령층으로 하여금 개인, 집단 또는 사회에 의존케 만들며 이로써 중고령층의 권력 또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란 이를 통해 중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중고령층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며, 이에 대한 인정을 보상으로 받음으로써 노인의 교환자원과 지위를 부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권영세, 2008; 이금룡 외, 2009).

한편 고은숙(2002)은 교환이론에 따라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였는데, 봉사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이 이타적 행동을 높게 평가할 경우, 수혜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보상을 받기위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보상을 충실히 해준다면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환이론은 보상의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적 승인과 같은 도덕적 보상과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보상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은숙, 2002).

그러므로 노인문제뿐만 아니라 중장년기 문제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에 의한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중고령층으로 하여금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물질적이든 심리적이든 개인에게 돌아오는 어떤 혜택만을 보상으로 봄으로써 행동을 지나치게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만 이해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정희

영, 2007).

6) 이론적 논의의 종합

자원봉사 동기에 대해서 5가지 이론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자원봉사는 하나의 이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명될 수는 없다. 인간행동의 동기가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살펴봄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앞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자원봉사 동기에 관한 이론을 정리한 표이다.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는 관련 이론들은 중고령층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중고령층의 개인적인 생활만족감, 심리적 안녕감의 제고뿐 아니라 중고령층이 보유한 자원을 사회로 환원함으로써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발한 사회참여를 생활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세대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들은 서비스의 제공자이기보다는 수혜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고령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신노년층 즉, 중고령층은 평생 동안 축적된 지식과 능력 그리고 훈련된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풍부히 갖고 있기에, 이를 확장, 촉진하는 국가적, 개인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원봉사포럼, 2006).

우리나라에서 중고령층 인구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사건이나 문제점들이 언론과 학자들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중고령층은 정부정책의 수혜자로 여겨지고 있으나, 그 자원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접근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즉 중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자원봉사를 통하여 축적한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2-2> 자원봉사 동기에 관한 이론

	대표학자	정의	평가
기대이론	Vroom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일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그 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자원봉사자를 계속 프로그램에 머물게 하기위한 기대유지가 필요함
동기이론	Francies	인간행동을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나눌 때, 자원봉사는 이타적 동기로 봄	개인의 동기에 따라 적절한 자원봉사가 제공되어야 함
지속이론	김미혜	자원봉사를 적극적 사회활동으로 보고 생활양식의 연속적인 대체활동으로 봄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유형을 지켜나가면서 자아존중감을 지속적으로 확보
활동이론	Havighurst	노년기에도 여전히 활동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참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 증가
교환이론	Homans	이타적 행동을 보상과 관련시켜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해석	개인의 자원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위를 부상시키는 수단

자료 : 필자 작성

3. 노인자원봉사의 선행연구분석

노인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노인자원봉사자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참여 및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만족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정신적·신체적·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타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노인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 연구들은 사

회적 자본이 자원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인인구 증가가 사회문제의 직접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도 사회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인자신의 심리·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인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노인자원봉사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활동 종류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성욱(2005)은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참여태도와 결부되며 곧 생활만족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민정(1998)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 되었다. 또한 조휘일(1990)은 자원봉사자들이 이타적 동기보다는 진정한 자기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기 요인 중에서 이기적 동기인 사회적 인정동기와 이타적 동기인 사회적 책임감 동기가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연구도 있다(윤민혁, 1999).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있어서는 직업이 없는 노인이 직업이 있는 노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정경진, 2003).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가 낮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김필레, 2000). 자원봉사활동의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김민정, 1998). 권지성(1999)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업무의 적절성과 자신의 적성과 활동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활동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실제 활동 간에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봉사기간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윤미애(1998)는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보상은 정서적 안정을 지지하는 집단이 물질적 반대급부를 희망하는 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황혜정, 2002). 보상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만족감, 기쁨 등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심리적·경제적·사회적·신체적인 것을 포함한다(김주현, 2000재인용). 자원봉사활동은 심리적·정신적·물질적·사회적 인정과 보상이 상호 교환 되어졌을 때 지속적인 동기와 만족을 갖게 되며 이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경험이 만족스럽도록 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업무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박소윤, 1999).

한편 인정과 보상이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봉사의 경험에서 만족을 경험하고 따라서 기관에 머무르도록 격려하고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 참여기관에서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일에 대해 인정을 받고 긍정적인 지지를 통한 내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성옥, 2005).

김정섭(2007)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분야 중에서는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활동에 만족하며 가족의 반응이 긍정적일 때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윤영환, 1995; 김민정, 1998).

노인자원봉사자의 참여도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연령, 종교, 사회적 인정 동기, 사회적 책임감, 동기, 자원봉사활동에의 흥미와 관심이 많은 경우이며(윤민혁, 1999)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활동경력이 길수록 활

동 내용이 자신의 희망, 능력, 적성을 고려한 활동이며 활동시간과 기관까지의 거리가 적절하며 활동업무가 기관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또 자원봉사자 모임, 보상, 교육이 실시될수록 노인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이 높게 나타나며,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하였다(주희진, 2000). 이처럼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만족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이훈, 2000). 김휘란(2000)의 자원봉사 유형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특정한 기관에 속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까지 노인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연구들은 노인자원봉사자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참여 및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만족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정신적·신체적·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타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즉, 노인의 자원봉사는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개인적 차원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개인적 차원에 노인자원봉사를 넘어 거시적인 차원으로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 2 절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논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적 역사가 짧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적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요소들을 소급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개인의 참여를 내세워 민주주의 역사와 동일한 선상에서 사회적

자본을 논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자본에 관한 개념정의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효용성까지 적절한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 개념의 현대적 출현은 1960년대 초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슨(Johnson, 1960), 슈츠(Schultz, 1961), 베커(Becker, 1962; 1964) 등이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Bourdieu(1967)가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데서 연원한다.

Bourdieu는 문화자본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1980년대 들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김상준, 2004; 홍영란 외, 2007에서 재인용). 체계적인 학술 개념으로서 가장 먼저 사회적 자본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규정한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갖고있는 지속적 네트워크와 집단 소속이 각 개인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Bourdieu는 “특정한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여러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Bourdieu는 ‘자본’을 축적된 역사(accumulated history)로 요약하며, 자본이란 축적된 노동(accumulated labor)으로서의 가치(상품)이고 순환 및 자기증식하는 가치(상품=축적된 노동)라고 본 마르크스적 자본 개념을 경제재(economic goods or assets)로서만이 아닌 교육재, 문화재, 사회재, 정치재 등으로 자유롭게 확장하였다(김상준, 2004; 홍영란,

2007에서 재인용).

Bourdieu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는 연결망, 자원, 그리고 관계라는 세가지 주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연결망의 크기와 자원의 양이 사회적 자본의 분명한 두 요소인 반면, Bourdieu는 사용가능한 자원들이 특별한 사회적 위치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관계적 특성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이는 사회관계에의 배태성(embeddedness)을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사회 연결망 연구들에 의해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Bourdieu의 접근법은 공유된 신뢰나 호혜성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여타 자본의 한 형태로 사회적 자본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장이론(field) 및 아비투스(habitus)개념과 함께 비판적 관점에서 계급의 차이들이 생산되고 고착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특정 조건 하에서 다른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제도적 특성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관계들의 체계로서의 장(field)은 다양한 사회적 지위들로 구성되고 이들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인지와 행동들을 다른 계급과는 구별되는 다른 습성으로 내재화하며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계급들이 해당 장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자본들을 동원하는데 유리한 작용을 하지만, 이 역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해 다른 자본을 획득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각 집단은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여 협동적 또는 배타적으로 행동하며, 동시에 사회적 응집력과 함께 대립도 양산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자본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Coleman(1988, 1990)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합리적 선택이론을 대표하는 그의 사회적 자본 정의는 “기능들의 총합”이며, 사회구조로서의 특성들과 그 구조 속에 속한 개인들의 행위들을 촉진하는 실체들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Coleman의 사회적 자본

은 그것의 기능에 의해 정의되는데, 그것은 특정한 하나의 실체가 아닌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을 공유해야 한다.

즉, 사회적 자본은 첫째,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구성되며, 둘째,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이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사회적 자본이 없을 경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자본이나 인적자본과 같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특정한 행위에 특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Coleman, 1988).



<표 2-3>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차이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이론적 의의	화폐가 아닌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	자본가에 의한 배타적 소유만 인정되던 자본의 개념 수정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불일치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자본
자본 소유자	개인(자본가)	개인(노동자)	가족전체 또는 가족의 개별구성원	집단 (사회집단)
자본 소유자가 갖는 이익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통한 경제적 이익	노동시장에서 협상력증대, 높은 임금	다른 계급과의 구별짓기,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정보의 취득, 사회적 연대, 결속의 창출
자본의 존재 형태	물질적 대상 (생산수단)	교육·훈련을 통해 개별노동자에게 체화된 기술·지식	가족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취향	사회적 관계속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관계
분석 단위	구조(계급)	개인	가족	개인 또는 집단
연구의 초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 착취관계	교육과정과 임금	수준의 연관성 등 문화자본을 통한 세대간 계급 재생산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유형

자료: 유석준 · 장미혜 · 정병은 외(2003)

Coleman에 의하면 모든 사회적 관계와 사회구조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도움을 준다. 행위자는 특정 목표를 위해 관계를 형성하고 이익을 계속적으로 얻고 있는 한 그 관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특정한 사회구조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을 촉진시키는 사회구조로서 Coleman이 제시한 것은 연결망의 폐쇄성과 전유할 수 있는 사회조직이다. 연결망의 폐쇄성은 효과적인 규범의 존재 및 신뢰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사회구조가 폐쇄적이지 않다면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에 대한 제재

가 그 의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판이나 신뢰성을 높이는 집합적 제재라는 것도 개방된 사회구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뢰는 폐쇄된 사회구조 속에서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유가능한 사회조직의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조직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Bourdieu와 Coleman에 의해 시작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지배적인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공동체나 집합체 전체의 정치문화나 조직의 특성을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관계의 패턴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다. 미시적 접근은 최근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이라는 계량적 방법에 의해 발전하고 있으며, 거시적 접근은 설문에 기초한 대규모 사회조사 결과를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유석춘 외, 2003).

Bourdieu와 Coleman의 연구와 같이 개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미시적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은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나 범위, 혹은 연결망 내의 위치에 따른 중심성이나 배타성, 자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Burt, 2001, 유석춘 외, 2003). 따라서 미시적 연구에서는 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원동원 측면에서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 거시적 차원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으로 파악하여 그 사회의 전통이 신뢰나 협동과 같은 호혜성에 기반한 가치 또는 관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거시적인 연구는 주어진 문화나 조직의 차원에서 파악된 사회의 특성이 그 사회의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혹

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유석춘 외, 2003).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을 논의한 대표적 학자로 Putnam(1993)을 들 수 있으며, 그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와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한 형태로서 구성원의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요소”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 물적자본과 함께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하면서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투자이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정기환 외, 2006).

Putnam은 저서 “Making Democracy Work(1993)”에서 이탈리아의 남북부 지역정부의 거버넌스와 경제적 번영 정도의 차이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집단적 자산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레임을 미국으로 옮겨온 이후 그의 저서 “Bowling Alone(2000)”에서는 미국이 기술 및 미디어의 발전과 세대별 차이로 말미암아 시민사회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각 사회제도의 효율성이 낮아졌으며,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의 후퇴, 범죄율 증가, 민주화 및 경제수준의 하락 등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일부 정부 프로그램이 현존하는 사회적 연결망을 파괴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시민 참여에 의한 지역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됨을 의미하는 반면,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자본은 사실 그간의 지역사회 역량(community capacity),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지역사회 역량강화(community empowerment),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등과 명백하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들인 Bourdieu, Coleman, Putnam의 관점은 각기 차이를 지닌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Bourdieu는 불평등과(사회적) 배제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멤버십을

통해 이익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즉 투자를 통해 경제적·문화적 자본으로 전환되어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유재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Coleman은 다소 보수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 성격을 논한다. 한편 Putnam은 정치경제적 발전과 시민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거시적 차원에서의 공동체 정체성, 시민적 참여와 네트워크,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집단적 자산’으로 간주하였다(구혜정, 2002). 이들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3>와 같다.

<표 2-4> 사회적 자본 개념의 비교

	개념정의	목적	분석 단위
Bourdieu	집단적 사회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	경제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사회 계층간 경쟁측면에서의 개인
Coleman	행위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구조의 여러측면	경제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개인
Putnam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효과적인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역

자료: OECD(2000), 홍영란 외(2007)에서 재인용.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다.

Fukuyama(1995)는 Coleman의 논의를 발전시켜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측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신뢰는 상호성의 규범과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협동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상호 호혜성, 시민적 임무, 도덕적 의무 등은 안정적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신뢰는 또한 경제적 성장에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률, 계약, 경제적 합리성 등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조건을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성, 도덕적 의무감,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 등이 사회적 관습으로 배태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Portes(1998)는 사회자본을 연결망이나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혜택을 확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사회적 자본의 근원을 ‘완성적 동기(consummative motivation)’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로 구분하였다. 완성된 동기란 행위자가 도덕적 의무감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개인의 내면화된 규범이 집단의 사회적 자본으로 나타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도구적 동기란 상호성의 교환과 공동체적인 의무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강요된 교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Woolcock(1998)은 이민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소규모 기업이 미시적 수준에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와 사회구조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배태성(embeddedness)과 자율성(autonom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배태성이란 미시적 수준에서는 소수민족의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체 사회 안에서 이루는 사회적 연대(social ties)를,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와 사회조직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상승효과(synergy)를 의미한다.

자율성이란 미시적 수준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지역사회 내의 다른 조직들과 연계성을 갖는 것이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 사회제도 속에서 기업이 지니는 능력과 신용(institutional capacity and credibility)을 의미한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미시적 혹은 거시적 수준에서 어떠한 형태로 결합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과 긍정적 관계에 놓이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빈곤한 공동체가 발전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의 통합성(integration)을 거치게 되고, 이것이 지속성

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넘어선 다른 주류 사회와의 연계성(linkage)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Woolcock, 1998; 정기환 외, 2006).

많은 연구자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OECD(2000)는 사회적 자본을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가치 및 이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집단에 의해 공유되므로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와 행동 규범의 산물로서 개인 간의 관계에 존재하므로 인적 자본이나 물리적 자본과 차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았다.

2.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무형이고 추상적인 만큼,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이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도 연구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기존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network), 신뢰(trust), 상호호혜성(norms of reciprocity)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 신뢰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기도 하며, 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뢰는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관계 속에 존재하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서로 협동, 감시, 통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안우환, 2005). 또한 사회적 자본의 전형적인 예로서 사회적 안정과 결속, 협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박찬웅, 1999,

한상미(2007 재인용).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거나 혹은 폐쇄된 네트워크에서는 신뢰에 의존하거나 신뢰를 증진시키는 호혜적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신뢰 그 자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속성일 뿐, 그것 자체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따라서 한 개인이 맺는 신뢰관계 대상의 양 뿐만 아니라 중첩성이나 질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한상미, 2007).

Coleman(1988)에 의하면 신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친근하고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그것이다.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뢰와 상호부조는 구체적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구조적 측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Foley & Edwards, 1999, Jackman & Miller, 1998). 반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상호부조는 일반화된 신뢰와 상호부조(*generalized trust and reciprocity*)라고 명명되며, 이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공유된 가치나 행동에 대한 기초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와 상호부조는 공식적인 거버넌스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규칙의 공정성과 공식적 절차, 쟁점의 해결이나 자원배분 등에 의해 형성되는 신뢰와 상호부조를 말한다(Stone & Hughes, 2002, Rothstein & Stolle, 2001, 안성호 & 곽현근, 2004 재인용).

Putnam(1993)은 초기에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으나, 개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탈락시킨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신뢰가 사회생활의 마찰을 제거하는 윤활유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신뢰는 호혜성의 규범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자본의 다른 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정의 내렸다.

한편, Fukuyama(1996)에 의하면 신뢰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

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경제학적 입장에서, 개별 국가의 경쟁력과 삶의 수준은 한 사회의 고유한 신뢰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신뢰를 담는 그릇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았다.

2) 상호 호혜성

사회적 자본의 또 다른 구성요소로는 상호호혜성을 들 수 있다. Coleman은 상호호혜성이라는 용어 대신 상호부조의 규범을 언급하였는데, 그에게 있어 상호부조의 규범은 상호부조의 ‘호혜적 성격’과 ‘규범’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홍현미라, 2005).

Coleman(1988)에 따르면 이러한 규범은 개인의 이기심을 차단하고, 집단 전체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게 하며, 사회적 지원, 지위, 명예, 그리고 다른 보상에 의해 강화되어 젊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된다. 또한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을 자제하고 가족의 이해를 위해 봉사하는 가족구성원을 만들어내고, 보살핌과 헌신으로 뭉친 작은 집단을 통해 사회운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을 키워낸다. 즉, 자기억제적 행동에 대한 외적 보상을 통해 지원을 받고 이기적 행동을 자제하게 됨으로써 집합적 생활에 존재하는 공공재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Coleman, 1988).

Bourdieu(1986)는 “관계의 네트워크는 전략 등의 투자의 산물인데, 이는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견딜만한 의무감(감사, 존경, 우정의 태도 등)을 암시한다”라고 하면서 호혜성은 사회적 자본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Putnam(1993)은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norms of generalized reciprocity)에 대해 언급하며,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은 시민참여의 연결망에 의해 확고하게 증진된다고 보았다. 그는 일반적 호혜성에 의존하는 사

회는 불신의 사회보다 더 효율적인데, 이는 현금이 물물교환보다 보다 효율적인 것과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호혜성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으며, 간혹 미지의 타인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 위에 성립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러한 일반적 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두터운 상호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인 동시에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또한 호혜성은 당사자가 아닌, 같은 집단에 속한 제3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시간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관계 측면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상이 되돌아 오는 상황을 규정하기도 한다. 즉, 당사자들 만의 교환관계가 아닌 집단 전체로 교환이 일반화되는 규범이 작동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다(장충권, 2005, 한상미 2007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호혜성은 신뢰와 관련되며, 신뢰 없이는 일반화된 호혜성이 나타날 수 없다. 또한 호혜성은 신뢰를 증가시켜주고, 호혜성의 실패는 신뢰를 감소시킨다.

3)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네트워크³⁾이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개인과 집단 간,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상호작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회구조를 구성하게 해준다. 규범과 정보의 흐름은 네트워크가 기능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구혜정, 2002).

한편,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뢰

3)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 네트워크는 구조화되지 않은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연계(linkage), 교류(association) 또는 구조화된 조직이나 네트워크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organization or network)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한상미, 2007).

구조가 이루어지는 미시적 기반을 밝혀주기도 한다. 신뢰구조가 사회적 자본형성에 관여하는 방식도 ‘신뢰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이다. 개인들 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는 유형화할 수 있고, 이는 특정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데, 사회적 자본이 주는 이익은 바로 이 네트워크로부터 비롯되며 동시에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한상미, 2007).

Putnam은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가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을 확고하게 증진시키며, 협력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다른 개인 간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는 과거의 성공적 관계, 즉 협력의 경험으로 구체화하며, 미래의 협력을 위한 가치적 준거 틀로서 기여한다고 보았다. Putnam은 네트워크를 결속형 네트워크(bonding network)와 가교형 네트워크(bridging network)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결속형 네트워크는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 즉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회적 자본 형태이고 가교형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갖는 포용적 사회적 자본 형태로 규정하였다. 즉, 가교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수준과 규모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를 단정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비교할 수 있는 ‘다소간의 정도’의 차원들이라고 보았다.

Woolcock을 비롯한 최근의 몇몇 연구자들(Szteter and Woolcock, 2004; Kawachi et al., 2004; Loeffler, Christiansen, Tracy, Secret, Ersing, Fairchild & Sutphen, 2004; Healy, 2003; Hermoso, 2005; 한상미, 2007에서 재인용)은 결속형과 가교형 네트워크 구분 이외에 연계형(linkage)를 덧붙이고 있다. 가교형 네트워크가 비교적 비슷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형성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연계형 네트워크는 명백하고 공식적인 또는 제도화된 권위가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있는 관계의 규범으로서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또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Coleman(1998)은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강할수록 구성원 간의 규범과 신뢰가 증가하므로 사회적 자본 축적에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르테스(1998)는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고 폐쇄적일수록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가정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urt(1992, 1997) 역시 내부적 연결이 강한 네트워크에서는 새로운 정보 획득에 불리하다고 보았는데, 약한 연대와 강한 연대 모두 사회적 자본 축적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며, 보다 유리한 네트워크를 판단하는 데는 기준 설정의 문제가 핵심으로 대두되게 된다.

네트워크의 크기, 범위, 밀도, 다양성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 논의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안성호 & 곽현근, 2004, 홍현미라, 2005 재인용).

4) 사회적 자본의 측정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사회자본의 개념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서의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지만, 여전히 합의된 개념 도출이 어려운 만큼 사회자본에 대해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는 사회자본의 개념요소 설정 및 접근 시각에 따라 측정내용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맥락적 상황과 함께, 개념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다학제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명백한 개념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자본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White, 2002; 한상미, 2007 재인용). 대체로 사회자본에 대한 측정은 부분적으로 신뢰나 참여 등과 같은 가치적 부분에 의존해야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왔고 연구자 및 연구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사회자본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임시방편적인 방법론이 사용되는 등 측정 도구의 불일치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Krisna & Shrader, 1999, 한상미, 2007 재인용).

일반적으로 현재 통용되는 사회자본의 측정도구로는 구조적/인지적, 공식적/비공식적, 수평적/수직적, 질적/양적, 도구적/이타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실제로, 사회자본 개념의 모호성, 불안정성은 모든 사회적 특징들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측정도구들을 만들어 내었지만, 이러한 측정도구들은 그 이론적 배경에 충분한 동의를 얻어내는데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하게 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대개의 실증 연구들에서는 객관적 요소로서의 네트워크보다는 개인적이고 주관적 요소로서의 규범과 가치를 주로 측정하고 있다. 물론, 신뢰나 호혜성은 사회자본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정도구들은 관계의 구조와 떨어져서 논의 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가족과 같은 결속연결망은 무조건적인 호혜성과 개별화된 신뢰를 띄고 있지만, 동창회 등과 같은 가교연결망은 간접적이고 공평한 호혜성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관대한 신뢰를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보편화된 신뢰는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생성된 지역사회의 특성이기도 하다. 즉,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신뢰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사회적 관계에서 배태된 개인의 개별적 신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한편, 사회자본 측정의 구조적 접근으로서 네트워크를 조작화하는 경우에는 사회자본의 형태들을 파악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지만, 연결망의 크기, 자원의 종류, 자원의 양, 접근성 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이 또한 측정도구의 복잡성이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자본과 관련된 요소들의 상당수는 암묵적이고 상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이나 구조화가 어렵다. 이에 따라 OECD는 2002년 영국 및 헝가리와 공동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사회자본의 측정과 관련하여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있는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사회자본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자본을 분리된 영역 또는 측정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하였다. 이어서 측정도구의 국제적 적용에 대해 보다 타당한 접근 방식을 찾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OECD 내에서는 사회자본 측정에 대한 연구가 더 이상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홍영란, 2006).

국내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90년대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지역개발학 등의 분야에서 사회자본 이론을 도입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회자본의 개념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로 그 유용성을 논의한 기초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3.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기능

1) 사회적 자본의 형성

전술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관계에 존재하며, 관계는 교환을 통해

형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 생성에 있어 ‘관계’와 ‘변환’을 중시하였으며, 그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필수요소로 ‘관계’를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에서 말하는 ‘관계’는 실천적인 상태에서만,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물질적, 상징적 교환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들’은 가족이나 학교, 계급, 정당 등과 같은 제도적 행위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면서 보증된다. 이런 경우, 그 관계들은 교환 속에서 실제로 성립되어 있고 또한 유지되고 강화된다. 물질적, 상징적 교환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재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지시키는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은 물리적(지리적) 공간이나 경제적, 사회적 공간 속에서 객관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로 환원될 수 없다(Bourdieu, 1986).

이렇듯 관계형성을 통한 연계의 유형이 사회적 자본의 토대가 된다. 교환을 통해 형성·유지되는 사회적 자본은 결국 교환을 촉진하는 순환과정을 만들어내게 된다. 예를 들어, 서로 신뢰하게 되면 보다 기꺼이 상호협력하고자 하고, 이는 다시 신뢰를 증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은 조직 내 구성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 인해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박희봉, 2002).

사회적 자본 형성에서의 관계는 변환의 과정(transforming)을 거친다. 변환과정이란 변형적 교환 또는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교환이란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교환이론의 의미와 다르며, 사회적 자본은 사용기간 외에도 오랫동안 성립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형성에는 불가피하게 사회적교환에 대한 투자비용이 요구된다(Bourdieu, 1986).

또한 사회적 자본은 반복적인 PD(Prisoner's Dilemma: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생성된다고 보기도 한다. 즉, 일회적인 PD게

임에서는 배반이 두 행위자 모두에게 지배적인 행동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는 협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이 게임이 반복된다면, tit-for-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협력에는 협력, 배신에는 배신”으로 대응) 전략이 지배적이게 되어 두 행위자 사이에 협력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김남선·김은영, 2002).

종교 및 공통의 역사적 경험도 비공식적 사회규범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적 자본은 종교나 전통, 공통된 역사적 경험 등의 부산물로 정부의 통제밖에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기 위한 영역으로 교육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가르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전수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재산권 보호, 치안유지 등)를 효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때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결과 사람들 간의 신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김남선·김은영, 2002).

사회적 자본 형성요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Stone과 & Hughes, Stolle은 사회적 자본 형성 영향요인을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지역적 특성, 제도적 특성에 따라 구성하였다(안성호, 박현근, 2004; 홍현미라, 2005 재인용). 개인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건강, 교육수준, 고용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제시하였으며, 가족특성으로 가족관계 내 지위, 결혼상태, 자녀유무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특성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 사회경제적 수준, 관계망 형성 비율, 지역사회 관련 지식, 지역사회 리더십, 지역사회의 치안 및 안전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도 특성으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자발적 결사체, 법규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인들 중, 개인 특성에서는 고소득, 고학력, 주택의 소유, 남성, 중년이상의 연령 등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수준과 정적 상관관계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Newton, 2001; 박희봉·김명환, 2000; 홍현미라, 2005 재인용).

그러나 가족특성 변수에서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실증 연구들이 보고되지 않았다. 단, Stolle & Newton(2001)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족경험에 기초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신뢰와 상호부조 규범 및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통해 가족적 특성변수의 영향력을 주장하였다. 지역특성변수 중에서는 지역의 안전의식이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Stone & Hughes, 2002; 안성호·곽현근, 2004; 홍현미라, 2005 재인용), 제도특성변수들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의 인과 관계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안성호·곽현근(2004)은 여러 연구들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적 특성변수들에 대한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을 예측하고 있다(홍현미라, 2005).

한편,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사회적 자본 형성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직급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체 참여 및 활동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참여 및 활동은 조직 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원봉사 참여는 신뢰에, 사내 단체 참여는 신뢰와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 단체 활동의 장려가 조직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업무환경이 사회적 자본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박희봉, 2002).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선진 주요국가의 전략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Saguaro Seminar(Putnam이 책임을 맡고 있는)에서 2001년 이래로 (인종과 민족 중심의)다양성 및 이민사회의 특성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다양성 및 사회적 자본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의 주요한 결과에 따르면, 다양

성과 이민사회의 형성이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는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를 강하게 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다양성이 공동체의 연대를 파괴시키거나 재설계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던져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이주민이나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을 주류집단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라는 보다 큰 공동체의식을 창조하고 이를 함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러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특히 시민 교육(civic education)은 이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평가되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요소나 가치의 공유를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Putnam은 새로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성공에 대해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미국 내 형성되어 있는 전체 사회적 자본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종교적 이슈에 관해서였다. 그는 어떠한 이유로 미국의 대형교회들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는데 대하여 낮은 진입장벽과 수천개의 작은 그룹의 별집구조를 통해 높은 공동체 의식과 규약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 낮은 진입장벽과 별집구조의 연계는 다른 많은 조직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일랜드에서는 2003년 국가경제사회포럼(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NESF)의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함의(The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보편화를 위해 도시/지방의 개발 및 공공서비스 전달수단 등을 통해 모든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조정, 통합을 증진한다.

둘째, 능동적 시민의식 및 지역사회개발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쓴다. 특히 국가차원의 봉사활동 센터의 건립, 지역 거점 정보통신 및 대중

매체에 대한 공공지원, 지역차원의 새로운 정치-학습 혁명 실험 등과 같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작업환경의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기업과 지역거점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뢰와 참여를 증진시키고, 직장생활에 대한 융통성을 보장한다. 또한 보육,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평등성 수준 측정 및 직장, 출퇴근, 육아, 교육, 봉사활동 등에 투자하는 시간을 국가차원에서 조사한다.

넷째, 생애학습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쓴다. 특히 이를 위해서 가정-학교-지역의 연계 및 지역거점의 학습네트워크 지원체제 개발, 지역사회와 기업 및 교육기관의 연계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들고 있다.

다섯째,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을 마련한다.

여섯째, 능동적 시민의식,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학습 및 공간전략 등에 대한 전략적 구상 및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개발을 제안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신자유주의 경제와 정보사회의 도전들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정부와 시민사회를 묶어주고 동원할 수 있는 중요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여기고 있다. 싱가포르는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민간관계를 보다 긴밀히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세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 첫째 전략은 ‘다리 놓기’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규범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공공의 협의를 얻은 공동의제수립(joint agendasetting)과 협의과정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계선 파괴’로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제시와 의사결정을 위한 여지를 넓히기 위해 정치경계선을 재규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장벽 허물기’로, 시민운동가들의 대표활동과 정부기관의 정책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위적인 관계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자본의 자원들을 동원하고 개발하여 관료들이 국가를 이끌어나가고 변화를 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홍영란, 2006).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그 주요 구성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성 등이 결합하고 선순환적 관계를 이룸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킨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조직 차원, 그리고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와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실행되고 있다.

사실, 사회적 자본의 근원 및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기능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효과들은 사회적 자본을 적용시켜서 연구할 수 있는 특정 종속 변수의 범위를 넘어서며, 예상되는 결과의 의미나 특성은 더욱 다양하다는 것이다(Portes, 1998).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자본의 기능은 크게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2) 사회적 자본의 기능

사회적 자본의 가장 강력한 순기능은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높은 신뢰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서면 계약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상세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없는 만큼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법적 문서나 근거 없이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채권과 채무가 형성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도가 높으면, 의무감을 상호 공유하게 되고 사회적 자본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첫째 높은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의 장기적인 결합을 가능하게 하므로 신뢰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공식적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대안적 수단을 찾아내기 용이하다(홍영란 외, 2007).

둘째, 높은 사회적 자본은 정보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킨다. 일반적으로 정보 획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잠재된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를 얻는데 소요하는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킨다. 특정 분야나 이슈에 대한 전문가를 알고 있는 경우, 필요할 때 전문가의 견해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를 추적하고 축적할 때 생기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업가들이 정보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업 운영비를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올리는 예를 비롯하여, 사회적 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일수록 조직에서의 승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 등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Burt, 1997).

셋째, 사회적 자본은 규범 혹은 사회통제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긴밀한 공동체 연결망에 의해 창출된 사회적 자본은 가족, 교사, 경찰이 자신들의 책임 아래 기본원칙을 유지하고 복종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 유용하다. 이 같은 사회적 자본의 원천은 보통 제한적 연대나 강제할 수 있는 신뢰이며, 이는 공식적이고 지나친 통제를 필요하지 않게 만든다(Portes, 1998). 또한 규범이 효과적으로 기회주의를 제재할 수 있게 되면, 감시·감독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투자와 경제적 거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은 시민적 도덕감을 증대시켜 유권자로 하여금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집합행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홍영란 외, 2007).

넷째, 사회적 자본은 조직 및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신뢰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정책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정책수행이 보다 추진력을 갖게 된다. 또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수익률이 높아진다. 조직 내 사회적 자본이 형성, 축적되면 구성원들의 활동이 원활해짐으로써 조직의 역동성이 증가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증진된다. 또한 신뢰문화가 체화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며, 더욱 효과적인 생산 단위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정보공유, 상호 학습에 유용한 지역학습조직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은 개인학습을 하는 조직보다 훨씬 유연하고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의 구직과정에도 도움을 주며, 신뢰에 기반하여 구축된 사회적 인프라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OECD, 2001; 홍영란, 2007 재인용).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반면, 부정적 효과나 기능에 대해 언급한 문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 혹은 부정적 결과의 초래 위험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연구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외부인에 대해서는 접근을 차단하여 배제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Waldinger, 1995).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사회적 자본에 의해 효율성 증가 등의 혜택을 얻는다면, 이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이러한 내부인/외부인의 구분을 통한 강력한 집단결속은 타인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으며,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지극히 낮은 수준의 협력과 신뢰를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타적 결속행위는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발전에 장벽이 되고 갈등을 유발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장

애가 될수도 있다.

둘째, 강력한 결속력과 공동체의 폐쇄성은 집단 구성원에 대한 ‘과잉요구(overdemand)’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구성원의 성공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기어츠(Geertz)는 발리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일 자리와 대출을 찾아다니는 친척들에 의해 어떻게 곤란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며, 그러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는 상호부조를 장려하는 강력한 규범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Geertz, 1963). 그러한 결과, 전도유망한 기업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강력한 연대속성을 지닌 공동체는 나태한 구성원들의 성공한 구성원들에 의존하는 ‘무임승차문제’를 갖게 되고, 이는 기업가적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공동체나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규범에 따라야하는 순응(confirmity)을 요구한다. 작은 동네나 마을에서는 모든 이웃들이 서로 서로 알고 있으므로 동네가게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신용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환경은 사회통제의 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게 된다. 브와스베인(Boissevain, 1974)은 말타섬 마을의 생활을 연구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자를 구속하는 친밀하고 ‘중첩된’ 연결망은 공동체의 삶과 고유의 규범을 강요하게 되고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감소시킨다(Portes, 1998).

넷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나, 투자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비생산적일 수 있으며, 비용효과성이 낮을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정보 이익에 관하여 한센(Hansen, 1998)은 다른 집단과 너무 많은 직접적 연계를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연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함을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가 정보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연계의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효과성이 낮아진다. 또한 때로는 사회적 자본의 정

보이익이 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Adler & Kwon, 2000).

제 3 절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

1.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의 관계에 대해서 앞선 선행연구들에서는 인과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자원봉사의 특성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양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 축적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지지되고 있다(김태룡 외 2008).

그 이유는 앞서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뢰와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관계라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자원봉사의 특성들이 상당부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어떤 것을 종속변수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통일된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계는 최종덕(2007)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봉사학습을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의 한 요소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서는 이성록(2001)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네트워크 또는 공동체 의식이 갖는 의미상의 범위는 작게는 부부

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자본 요인에서 부터 넓게는 지역 사회까지의 광범위한 범위로 사회 자본을 정의하였다. 김태룡·안희정(2009)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를 강화하는데 있어 사회적 자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특성인 이타성과 자아실현에 사회적 자본의 요소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이 모두 각각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광(2004)의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Bullen과 Onyx(1997)는 호주 New South Wales의 다섯 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상향적(bottom-up)” 입장에서 접근하고, 사회적 자본을 신뢰, 상호 이익관계 및 행동규범의 원칙에 근거한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민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회적 자본 측정에 앞서 이제까지 문헌상에 나타난 사회적 자본 관련 주제를 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첫째 네트워크에의 참여, 둘째 호혜성(reciprocity), 셋째 신뢰, 넷째 사회적 규범, 다섯째 공통분모(the commons), 여섯째 적극적 활동력(proactivity) 등이다.

Bullen과 Onyx(1997)의 사회적 자본 개념요소는 사회적 자본을 협의로 접근한 Putnam(1993)과 유사한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도출한 사회적 자본 개념요소는 모두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조정과 협동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Bullen과 Onyx(1997)의 사회적 자본 지표는 실증연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서 사회적 자본의 의미만으로 사회적 자본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자원봉사활동연구에 받아들여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려는 입장을 사회자원 관점이라고 부른다(이현기, 2010). 이 시각은 노인의 사회자원(social resources)은 노인이 자원봉사에 참여케 하고 자원봉사 참여기회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Smith, 1994;

Jackson et al, 1995). 자원봉사활동에서 사회자원이란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집단 소속, 가족유대 등을 의미한다. 노인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중고령층이 갖는 자원봉사활동 기회는 이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다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이들로 부터 얻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대로 인하여 시민 참여적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직접적으로 요청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타 집단에 속한 사람과의 유대관계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및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도 보다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결하는 기제는 사회적 연결망 속에 있는 구성원간의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결하는 기제는 사회적 연결망 속에 있는 구성원간의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연결은 상호간 신뢰를 조성하고, 형성된 신뢰는 개인들이 더불어 지역사회로 나아가 시간과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아주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다른 개인과 다른 점이 넓은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더 많은 결사체 조직(봉사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에 관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연결망은 자발적 결사체, 사회단체, 친목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구성원 관계가 얼마나 조직화 되었느냐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중고령층은 그가 속한 조직으로부터 자원봉사를 직접 요청받는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누가 자원봉사를 하기를 희망하는지도 알 수 있어 풍부한 자원봉사자 인력 풀을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건들로 인하여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가족관계, 근로활동, 종교 활동과 같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의해서 확대되거나 강화되어 자원봉사활동과 연결될 수 있

다. 개인을 사회 연결망에 통합시키는 주요한 기제인 가족제도는 구성원을 사회와 통합시키며 개인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한 사람들이 미혼자보다 자원봉사를 자주하며, 한 배우자가 자원봉사를 하면 다른 배우자도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혼 상태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봉사기회, 자원봉사자간 신뢰, 집단 노동 등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가진 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 최근에 Tang(2006)은 사회적 자본 변수인 비공식 사회적 통합과 친구 수가 자원봉사 지표 변수인 자원봉사시간 및 봉사조직 수와 독립적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Wilson & Musick(1997)도 사회적 자본 변수인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가구 내 어린이 수가 자원봉사활동과 정의 독립적 관계를 갖고 자원봉사 활동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Musick, Wilson & Bynum(2000)은 그들의 공식적 자원봉사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 회의참석, 종교예배참석, 자원봉사요청과 같은 변수들은 자원봉사시간에 대하여 독립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위의 변수들의 횟수가 증가 할수록 자원봉사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urr, Choi, Mutchler & Caro(2005)는 미국인 생의변화연구(American's Changing Livies Survey)를 분석한 연구에서 자원봉사와 비공식 도움주기는 관련되었고, 동시에 사회적 자본 변수, 비공식 사회적 활동과 비공식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는 자원봉사시간을 증가시키는데 독립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다. 이 경우 대부분 Putnam(1995)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네트워크, 규범, 신뢰)은 참여를 통해서 목적 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정치적 이슈이건, 경제적 이슈이건 관계없이 참여가 목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것에 기인해 사회적 자본도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와 공동체 의식, 네트워크 등의 단편적인 요인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홍연숙, 2008; 홍은진, 2006; 김범수, 2006; 김동원, 2005; 김영호, 2005; 이금룡, 2003; Wilinon & Bittman, 2002; 김선미·이기영, 2002; 이성록, 2002; 서주영, 2001),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한 요소인 네트워크나 참여, 공동체 의식 등이 자원봉사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대안으로서 네트워크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네트워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친구나 친지 등 주변 인물을 통한 긍정적 경험은 자원봉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관되게 드러났다. 자원봉사를 하는 친구나 이웃 등과의 상호관계와 주변인들의 지지를 통해 자원봉사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관련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는데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 가족, 친구, 동료의 요청 및 권유, 조직의 권유, 부모의 영향력을 가장 높은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는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이강현 외, 2008).

한편 사회적 자본은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시점 뿐 아니라 자원봉사 과정 중에도 큰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 Brown & Ferris(2004)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연계망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자원봉사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가에 대해 토빗 분석을 하였는데, 분석결과 사회적 연계망은 자원봉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갖지 않았으나, 사회에 대한 신뢰는 자원봉사에 매우 유의한 수준의 정적인 영향력을 갖

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강철희, 2007 재인용).

Inouye(2007)는 미국에서 사회적 신뢰가 공식적 및 비공식적 자원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결과, 사회적 신뢰는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는 공식적 자원봉사기간과 유의한 수준의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는 비공식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종별 사회적 신뢰의 차이는 공공기관과 민간 및 자선기관에 대한 경험의 소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기관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자원봉사활동의 총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희(2007)는 사회복지, 모금단체,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에 대한 신뢰도와 자원봉사노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뢰의 수준이 자원봉사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동시에 자원봉사의 수준이 신뢰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의 수준과 신뢰의 수준은 쌍방향 관계를 갖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성록(2002)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관련 우인(友人), 즉 자원봉사를 하는 가족, 친구, 친지들의 존재가 그 수준이 한단위가 증가할 때 마다 자원봉사 참여의 가능성은 35.4%씩 증가하여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Eun(2009)은 사회적 자본을 단체의 참여,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관계로 나누어 자원봉사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관계는 모두 자원봉사 참여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단체나 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진 사람,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의 중요한 참여 요인이고, 자원봉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람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는 이타심, 자발성, 무보수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신뢰와 네트워크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 변수는 아니다. 오히려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친구나 이웃 등과의 신뢰가 증가됨으로써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제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대체적으로 네트워크, 신뢰, 상호호혜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구성요소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측면으로, 신뢰와 호혜성은 인지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을 귀납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를 발판으로 사회적 자본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평면적 일상 관계 속에서 특정 목적의식이 보다 강하게 개입되고, 보다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관계를 통해 그 관계가 일정 유형을 띄게 될 때 비로소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다. 신뢰와 호혜성 역시 사회적 자본을 인식하는 귀납적 도구로서, 가치, 신뢰, 호혜성은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가 되며, 실체가 없는 이러한 개념들은 네트워크에 의해 귀납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고 보았다(한상미, 2007).

네트워크는 실체가 있으며, 이 실체가 작동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발생한다. 만일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사회적 자본은 형성되지 않는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을 담는 그릇으로서 신뢰와 호혜성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숙미, 2002). 아울러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교환을 통해 창출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네트워크로 표현된 신뢰에 기반한 호혜주의 규범에 의해 형성되고(Emerson, 1981), 이러한 호혜주의 규범은 협력행동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Putnam, 1993; Fukuyama, 2005; Tyler & Kramer, 1996; 장용호, 2005 재인용). 신뢰는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와 관계되며, 밀도 있는 네트워크는 신뢰를 증진시킨다(Lin a, 2001).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측면인 신뢰와 호혜성과 구조적 측면인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선순환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3. 중고령층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중고령층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로, 중고령층의 개인적인 생활만족감, 심리적 안녕감의 제고뿐 아니라 중고령층이 보유한 자원을 사회로 환원함으로써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발한 사회참여를 생활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세대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고령층은 서비스의 제공자이기보다는 수혜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고령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신노년층은 평생 동안 축적된 지식과 능력 그리고 훈련된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풍부히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증가는 사회적 자본 축적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될 수 있다.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의 성과를 제시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신체적, 정신

적 건강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참여노인일수록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부정적인 삶의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자원봉사활동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Rietschlin, 1998), 낮은 수준의 우울감과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강한 삶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약 30년 이후에도 비교적 양호한 신체적 건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망률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Oman, Thoresen, and McMahon(1999)는 그들의 연구에서 사망률과 관련된 다른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후 2개 이상의 봉사처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약 63% 낮은 수준의 사망률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후의 연구자들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횡단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을 비판하며,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수준과 그에 따르는 긍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성과와의 관계를 상호호혜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Thoits & Hewitt(2002)은 미국의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조사자료 중 1986년 자료와 3년 후의 동일한 응답자를 추적한 패널자료를 분석하여 노인자원봉사자의 6가지 측면에 대한 안녕감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의 1차년도 행복감,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통제력, 신체적 건강, 우울감 수준을 통제한 후 자원봉사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각 6개영역의 안녕감 수준이 높아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또한 각 6개 영역의 안녕감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Luoh & Herzog(2002)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패널조사의 1998년과 200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은 추후 노인의 자기보고식 신체적 건강수준과 일상생활능력 기능에 있어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

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악화와 사망으로부터 보호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성과와 관련된 국내의 실증적 연구는 주로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다양하게 정의된 심리적 안녕감 수준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비참여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고(강창범, 2006), 안녕감 수준이 높으며(정경아, 2000), 자아존중감과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정도, 가족의 지지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현·한경혜, 2001). 또한 대면적 또는 비대면적 자원봉사의 참여특성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정순돌·이은주(2005)는 자원봉사의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대면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봉사대상자에게 노인자원봉사자가 흥미를 갖지 못하면 봉사활동 자체를 중단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노인자원봉사의 경우, 직접 만나는 봉사대상에 대한 의미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금룡(2003)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윤미혜(1995)는 봉사활동을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노인일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고독감 수준이 낮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박명순(2003)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지각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고, 특히 봉사경력이 길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특성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조직소속감, 활동에 대한 사전교육과 재교육, 보상, 다른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 등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숙경, 2002; 지경애, 2004).

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제 1 절 연구모형

1. 연구모형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의 관계에 대해서 앞선 선행연구들에서는 인과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자원봉사의 특성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양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 축적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지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뢰와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관계라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자원봉사의 특성들이 상당부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어떤 것을 종속변수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통일된 의견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연구는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대다수 연구들을 보면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 자본 형성이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친구나 이웃 등과의 신뢰가 증가됨으로 하여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하였듯이 사회적 자본은 대체적으로 네트워크, 신뢰, 상호호혜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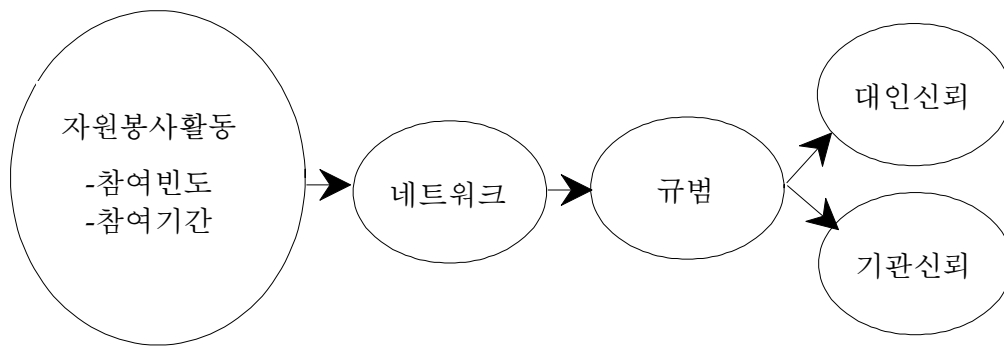
측면으로, 신뢰와 호혜성은 인지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호혜적 규범과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궁극적 사회적 자본인 호혜적 규범과 신뢰가 구성된다. 즉, 신뢰와 호혜성은 사회적 자본을 인식하는 귀납적 도구로서 이 개념들은 네트워크에 의해 귀납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한상미, 2007).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을 담는 그릇으로서 신뢰와 호혜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숙미, 2002).

한편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궁극적인 구성요소로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교환을 통해 창출된다. 호혜적 규범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공동체 내에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 즉, 사회적 신뢰는 네트워크와 호혜주의 규범에 의해 형성되고(Emerson, 1981), 이러한 호혜주의 규범은 협력행동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요컨대 신뢰는 호혜적 규범 및 네트워크와 관계되며, 밀도 있는 네트워크와 높은 호혜적 규범은 신뢰를 증진시키게 된다(Lina, 2001).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측면인 신뢰와 호혜성과 구조적 측면인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선순환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네트워크의 확대가 호혜적 규범의 축적에 기여하고, 이는 다시 사회적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조화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모형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데, 이 모형은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원봉사활동이 네트워크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크는 다시 호혜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며, 호혜적 규범이 궁극적으로 신뢰의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II-1> 분석모형의 설정



2. 조사도구 및 설문구성

1)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수 검토

사회자본 측정을 시도한 연구로 먼저 박희봉과 김명환(2001)은 서울시 서초구와 경기도 포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의 사회참여와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회자본은 아래의 표와 같이 하위 지표들을 통해 측정을 시도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사회자본을 지역사회 참여와 분리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들이 지역사회 참여의 형태로 구현되고, 이들 간의 영향을 통해 규범, 신뢰, 집단내 협력, 그리고 정보공유의 형태로 사회자본이 구체화된다고 파악하였다.

한편, 소진광(2003)은 사회자본 측정을 위하여 사회자본의 개념요소와 표현인자를 설정하여, 성남시를 대상으로 사회자본의 시차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는 사회자본의 개념요소로서 신뢰기반,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참여기회, 이타적 성향 및 포용력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표 3-1> 박희봉·김명환(2001)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념	구성요소	지 표
사회 자본	규범	지역주민의 준법정도/ 법에 대한 인식/ 도덕확립 정도에 대한 인식/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체 협력에 대한 인식/ 자원봉사 및 자선사업에 대한 인식/ 지역내 갈등에 대한 자체적 해결 정도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친척 및 친구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지방단체에 대한 신뢰
	집단 내 협력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다양한 집단의 의사 존중/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주도
	정보공유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공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 정보제공처 확보/ 사회단체의 정보제공 역할/ 언론의 지역문제 해결 역할

<표 3-2> 소진광(2003)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념요소	표 현 인 자
신뢰기반	공공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 직업상 거래관계에 대한 신뢰, 주변 개인관계에 대한 신뢰, 가족 간의 신뢰, 지역사회 안전 체감
네트워크	지역사회 참여단체 수(봉사단체, 종교단체, 이익단체, 클럽, 계모임, 친목단체, 향우회 등), 이웃의 범위, 지역사회 리더십 도움이 필요시 지원체계 구비 정도
사회적 규범	지역사회 규범 인지정도, 청소년 선도, 범죄율 범법행위에 대한 신고율, 자신의 규범 준수에 대한 태도
참여기회	지역행사 참여횟수, 투표 참여율, 피선거권 행사의향(시의원, 도의원, 시장 등) 시, 구, 동 자문 혹은 공익단체 자문 참여 횟수
이타적 성향 및 포용력	자원봉사 활동 참여 횟수, 주변 불우이웃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봉사단체에 대한 기부정도, 사후 재산처분에 대한 태도, 다양성의 포용력

정기환 외(2006)는 마을과 같이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와 그 속에 중첩적으로 조직된 사회집단의 사회자본 측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기초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을 개념화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을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에 해당하는 4~6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6개 농촌 마을의 작목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개념의 구성요소와 이를 측정하는 지표는 <표3-3>과 같으며, 지표구성요소별로 사회자본 측정이 가능하도록 각각 2개 이상의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3-3> 정기환 외(2006)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본질적 개념	하위 개념
사회적 교환과 보상	사회적 지위 향상, 동료간 신뢰 증진, 애경사 때 상부상조, 기회에의 접근성, 자원예의 접근성, 규범준수 의무
협동	노동 교환, 애경사 때 지원, 공동 기금 조성 참여, 회의 참석 정도, 공동 행사 참여, 단체 지지
경쟁	품질 경쟁, 생산 경쟁, 지도력 경쟁, 지위향상 경쟁
갈등	집단 내 정치적 이해 갈등 - 집단 간 정치적 이해 갈등, 집단 내 경제적 이해갈등 - 집단 간 경제적 이해 갈등

홍영란(2007)은 <표3-4>와 같이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영역 및 수준 설정 등을 통해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을 정립하였다. 사회자본을 개인과 집단의 협력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관계구조(제도), 네트워크, 상호호혜적 규범, 신뢰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사회자본을 3개의 영역과 3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21개 내용요소를 제시 하였다. 사회자본의 3개영역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 신뢰 및 관용성 영역,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미시적 수준(개인·가정·이웃 등), 중간 수준(학교·지역사회 등), 거시적 수준(국가·국제사회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회자본 측정 요소를 영

역별, 수준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표 3-4> 홍영란(2007)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

영역별 \ 수준별	미시적 수준/ 요소(개인·가정· 이웃 등)	중간 수준/ 요소(학교·지역사 회 등)	거시적 수준/ 요소(국가·국제사 회 등)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 개인의 참여 및 시민의식 - 가정에 대한 참여 및 시민의식 - 이웃에 대한 참여 및 시민의식	- 학교에 대한 참여 및 시민의식 -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및 시민의식	- 국가 수준의 참여 및 시민의식 - 국제사회 수준의 참여 및 시민의식
신뢰 및 관용성	- 친구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 가족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 이웃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 학교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 개인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 가정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 이웃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 학교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 국가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2) 변수와 지표 설정

이상의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수와 지표들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크게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신뢰의 3가지 개념으로 구조화하였고, 신뢰는 다시 대인신뢰와 기관신뢰의 2가지 하위 개념으로 세분화하였다. 각 개념요소별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지표

들을 종합하여 3~5개의 측정지표들을 선정하여, 이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초 설문지는 독립변수인 자원봉사활동은 8 문항(참여, 참여하지 않는 이유, 참여계기, 참여빈도, 참여기간, 자원봉사 분야, 참여동기,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을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최종적으로 참여빈도, 참여계기, 참여분야, 참여동기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중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을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또한 참여분야와 참여동기의 경우 자원봉사분야와 참여동기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음 종속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범주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신뢰, 상호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등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당초 신뢰는 8문항(가족, 이웃, 거래관계, 공무원, 정부정책, 국가기관, 민간기관, 거주지역 안전), 상호 호혜적 규범은 7문항(타인의 도움 기대 정도, 도움 받은 경험, 타인을 도운 경험, 젊은시절 자원봉사 경험, 갈등해결 방법, 이웃과의 친밀도, 타인 이해도), 네트워크는 5문항(인간관계 수, 인간관계 정도, 모임참여도, 지역사회 관심도, 지역사회활동 경험)을 조사하였으나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토대로 항목의 타당성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대인신뢰 3문항, 기관신뢰 4문항, 호혜적 규범 4문항, 네트워크 4문항을 선정 <표3-5>와 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최종학력, 경제적 수준, 거주지, 종교 등 6문항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성별, 거주지, 종교변수는 제외하고, 연령, 학력,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들은 1점에서 5점까지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3-5> 분석변수의 설정

구분	잠재변수	측정변수	설문문항
종속변수 1	대인 신뢰	가족간 신뢰	귀하는 가족 간에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웃간 신뢰	귀하는 주변 이웃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거래관계 신뢰	귀하는 주변 상인들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종속변수 2	기관 신뢰	공무원 신뢰	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입니까?
		공공정책 신뢰	귀하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국가기관 신뢰	귀하는 국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등)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민간기관 신뢰	귀하는 민간단체(기업체, 언론, 노동조합, 대학, 연구소 등)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종속변수 3	규범	타인도움 기대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타인도움 경험	귀하는 최근에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도움제공 경험	귀하는 최근에 타인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경험	귀하는 젊은 시절에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속변수 4	네트워크	친밀관계	귀하는 서로의 고민꺼리를 거부감 없이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모임 참여	귀하는 각종 다양한 인간관계의 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역사회 활동관심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사회 활동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독립변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빈도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참여 기간	귀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참여 분야	귀하는 참여하시는 자원봉사 분야는 무엇입니까?
		참여 계기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3. 조사대상

본 연구의 표본은 층화표본추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

였다. 첫째, 55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연구표본으로 선정하였고, 둘째, 같은 시설에서 같은 분야의 자원봉사원은 5인 이하로 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본선정은 서울시 자립도 기준으로 상, 중 하로 각각 3개구씩 9개구를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선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 거주지는 중랑구, 관악구, 구로구를 제외하고는 23개구에 분포되어 있었다. 선정된 소집단으로는 각 구의 노인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시니어클럽, 자원봉사센터 등 32개 시설의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자를 표본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가설 검증을 위한 설문에 자기기입(self-reporting) 방식으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설문기간은 2011년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표와 자원봉사담당자에게 자원봉사자의 요일별 봉사 인원을 조사하면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총 705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696부, 무효설문지 6부, 기간초과 후 회수 21부로 회수율은 98.7%이다. 이중 유효설문지 669부 표본으로 선정하여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절 가설의 설정 및 분석방법

1. 본 연구의 가설

본 논문에서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로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신뢰(대인신뢰, 기관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등 3가지 잠재변수를 설정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일관성이 낮은 문항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인 종속변수로서 대인신뢰는 3개의 측정변수, 기관신뢰는 4개, 규범은 2개, 네트워크 6개를 설정하였다.

중고령층의 봉사활동을 설명하는 관련 이론들은 중고령층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중고령층의 개인적인 생활만족감, 심리적 안녕감의 제고뿐만 아니라 중고령층이 보유한 자원을 사회로 환원함으로써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발한 사회참여를 생활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세대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고령층들은 서비스의 제공자이기보다는 수혜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고령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중고령층은 평생 동안 축적된 지식과 능력 그리고 훈련된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풍부히 갖고 있기에, 이를 확장, 촉진하는 국가적, 개인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의 성과를 제시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참여노인일수록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부정적인 삶의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자원봉사활동은 스트레스의 영

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낮은 수준의 우울감과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강한 삶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수준과 그에 따르는 긍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성과와의 관계를 상호호혜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종류에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성옥(2005)은 자원봉사 참여동기는 참여태도와 결부되며 곧 생활만족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민정(1998)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조휘일(1990)은 자원봉사자들이 이타적 동기보다는 진정한 자기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기 요인 중에서 이기적 동기인 사회적 인정동기와 이타적 동기인 사회적 책임감 동기가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연구도 있다(윤민혁, 1999).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있어서는 직업이 없는 노인이 직업이 있는 노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정경진, 2003).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가 낮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김필레, 2000). 자원봉사활동의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김민정, 1998). 권지성(1999)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업무의 적절성과 자신의 적성과 활동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활동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실제 활동 간에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봉사기간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윤미애(1998)는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노인자원봉사자의 참여도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연령, 종교, 사회적 인정 동기, 사회적 책임감, 동기, 자원봉사활동에의 흥미와 관심이 많은 경우이며(윤민혁, 1999)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활동경력이 길수록 활

동 내용이 자신의 희망, 능력, 적성을 고려한 활동이며 활동시간과 기관까지의 거리가 적절하며 활동업무가 기관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또 자원봉사자 모임, 보상, 교육이 실시될수록 노인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이 높게 나타나며,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하였다(주희진, 2000). 이처럼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만족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이훈, 2000). 김휘란(2000)의 자원봉사 유형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특정한 기관에 속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범위를 넓혔다.

특히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변수들의 관계를 보면 그 중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호혜적 규범과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궁극적 사회적 자본인 호혜적 규범과 신뢰가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뢰와 호혜성은 사회적 자본을 인식하는 귀납적 도구로서 이 개념들은 네트워크에 의해 귀납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한상미, 2007).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을 담는 그릇으로서 신뢰와 호혜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숙미, 2002).

한편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궁극적인 구성요소로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교환을 통해 창출된다. 호혜적 규범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공동체 내에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 즉, 사회적 신뢰는 네트워크와 호혜주의 규범에 의해 형성된다(Emerson, 1981). 요컨대 신뢰는 호혜적 규범 및 네트워크와 관계되며, 밀도 있는 네트워크와 높은 호혜적 규범은 신뢰를 증진시키게 된다(Lina, 2001).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와 호혜성,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선순환적 관계에 있으며, 특히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네트워크의 확대가 호

해적 규범의 축적에 기여하고, 이는 다시 사회적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조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종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여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본 논문이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설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1 :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긍정적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대인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기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호혜적 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긍정적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대인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기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호혜적 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가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보다 사회적 자본 축적이 높을 것이다.

가설 3-1 :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가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보다 대인신뢰가 높을 것이다.

가설 3-2 :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가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보다 기관신뢰가 높을 것이다.

가설 3-3 :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가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보다 호혜적 규범이 높을 것이다.

가설 3-4 :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가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보다 네트워크가 높을 것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기술통계 분석에 이어 요인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각 개념들의 인과구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은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3가지 개념요소들의 측정 타당성과 신뢰성을 파악하고, 이와 같이 사전적으로 설정된 사회적 자본의 잠재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들의 구형성(sphericity) 검정을 토대로 요인적재치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적용하였다.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토대로 2가지 독립변수(참여빈도와 참여기간)와 4가지 종속변수군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을 토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군들의 관계를 파악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2가지 독립변수들이 4가지 종속변수(대인신뢰, 기관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분야와 참여동기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가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수군들의 인과구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분산구조모형을 토대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HANSUNG
UNIVERSITY

제 4 장 연구의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 절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의 국내외 비교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참여에 관한 홍보 부족 및 활동 영역이 부족하며,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공헌, 경제적 실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 우리나라 자원봉사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3년마다 20세 이상 전국 규모의 자원봉사 활동 실태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령대별로 자원봉사활동 참여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9). 2002년도의 경우 40대의 봉사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2005년과 2008년도에 이르기까지 40대 봉사 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연령대는 50대로서, 1999년 14.1%의 참여율이 16.1%, 24.1%, 26.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60대 이상에서는 2005년도 16.5%에서, 2008년도 15.6%로 60대 이상 연령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그다지 증가하고 있지 못하다.

<표 4-1> 연도별 연령대별 1년간 자원봉사자의 비율

(단위 : %)

구분	1999	2002	2005	2008
20대	12.4	17.4	19.9	17.4
30대	12.5	10.7	17.8	15.8
40대	18.1	23.0	25.1	25.4
50대	14.1	16.1	24.1	26.5
60대	이상	-	16.5	15.6

자료 : 행정안전부(2008).

200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연령대별로 봉사활동 참여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데, 60세 이상 중고령층 가운데는 12.1%가,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2%가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2005년도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보다 구체적으로 60세 이상 중고령층 중 참여비율 측면에서는 64세까지의 중고령층이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연령대를 기점으로 참여율이 현격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60세 이상 노인 중 자원봉사활동 경험

	구분	없다	있다	응답수
전체	65세 이상	89.8%	10.2%	10,798명(100%)
	60세 이상	87.9%	12.1%	15,146명(100%)
연령대별	60-64세	83.2	16.8	4,348(100%)
	65-69세	88.1	11.9	4,098(100%)
	70-74세	88.9	11.1	3,069(100%)
	75-79세	91.6	8.4	1,901(100%)
	80-84세	92.8	7.2	1,043(100%)
	85세 이상	95.0	5.0	687(100%)

자료 : 보건복지부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한편, 전국 248개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통계를 통해, 전체 등록 자원봉사자 중 연령별 구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도 부터 2007년 까지 약 10% 정도까지 미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나, 2008년도에는 다소 낮은 비율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대표적인 여러 통계를 살펴볼 때,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중고령층 인구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1999년의 14%에서 2008년에 20%로 증가) 중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큰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 50대 자원봉사자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60대 이후까지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노인 자원봉사의 관심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표 4-3> 전국 지역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총 계	20세미만	30세미만	40세미만	50세미만	60세미만	60세이상
2004	1,722,823	389,037	217,903	264,024	420,595	270,517	160,747 (9.33%)
2005	2,083,704	461,728	280,234	291,274	495,536	345,960	208,972 (10.02%)
2006	2,681,193	577,475	387,578	377,498	615,256	440,742	282,644 (10.54%)
2007	3,279,911	731,312	491,402	491,573	717,813	501,151	346,660 (10.57%)
2008	4,396,633	1,102,429	654,826	665,965	917,345	628,507	427,561 (9.72%)

자료 : 행정안전부(2009).

2. 외국의 자원봉사 현황

한국에 비해 미국과 영국에서의 노인 자원봉사자의 비율은 다소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전체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이 27.6%인 가운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2.6%였으며, 2008년도 전체 자원봉사자율 26.4%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14.2%로, 노인 봉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표 4-4> 미국의 노인 자원봉사자 비율

(단위 : %)

구분	2002	2005	2008
16~24	13.3	13.7	13.3
25~64	74.1	73	72.5
65이상	12.6	13.3	14.2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각년도.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영국의 경우, 전국적인 자원봉사실태조사가 이루어진 1997년과 2006/7년 통계를 비교해 볼 때,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대 중 자원봉사 참가율은 40%에서 64%로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45%에서 53%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영국의 노인 자원봉사자 비율

연령	NSV 1997	2006/2007
16-24	43%(Base 111)	57%(Base 123)
25-34	52%(Base 296)	57%(Base 259)
35-44	52%(Base 284)	64%(Base 456)
45-54	57%(Base 228)	58%(Base 406)
55-64	40%(Base 193)	64%(Base 427)
65+	45%(Base 374)	53%(Base 484)

자료: 1)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1998). "1997 National Survey of Volunteering in the U.K."
 2) Helping Out(2008). "National Survey of Volunteering".

캐나다의 경우, 2004년 전체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이 45%인 가운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의 비율은 32%이었다. 2007년도 전체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이 46%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중 자원봉사활동 참가 비율은 36%로, 노인 봉사자의 비율은 조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캐나다의 노인 자원봉사자 비율

연령	2004	2007
16-24	55%	58%
25-34	42%	40%
35-44	51%	52%
45-54	47%	48%
55-64	42%	40%
65+	32%	36%
전체	45%	46%

자료 : Statistics Canada. 각년도(2004, 2007). National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일본의 경우, 2001년과 2006년 통계를 비교해 볼 때 전체 자원봉사활동 참가율이 28%에서 26%로 약간 감소한 가운데,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대 중 자원봉사 참가율은 31%에서 28%로, 65세 이상의 연령대도 27%에서 26%로 모두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4-7> 일본의 노인 자원봉사자 비율

연령	2001	2006
15-24	22%	21%
25-34	21%	18%
35-44	37%	32%
45-54	33%	32%
55-64	31%	28%
65+	27%	26%
전체	28%	26%

자료 : Statistics Bureau. 각년도(2001, 2007). 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

3. 국내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추진체계

1) 법적 근거

노인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관련 법률은 크게 노인복지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건강가족기본법 등이 있다. 이 중 노인자원봉사활동과 가장 연관이 깊은 법률은 앞의 두 법률이며, 이 중 ‘노인’이라는 연령층의 자원봉사활동에 특화된 법은 노인복지법이다.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법률 중 유일하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특화된 법률이다. 노인복지법 조항 중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위촉 및 업무) 등이 노인자원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

제23조 1,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인의 지역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 단속 보조와 청소년 선도, 전통문화의 전수 교육,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8.4 제정)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법적 성격으로, 자원봉사전달체계를 체계화하여 자원봉사 관련 정책의 중복을 막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법이다. 자원봉사자의 보호·포상,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률이다.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에 특화된 내용은 없으나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의 기본방향은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촉진하기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기타 법률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으나 자원봉사에 대하여 일부 다루고 있는 법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이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업무를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가족기본법 제33조에서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 장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령·시행규칙이 부재한 상태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제28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행령에서 전국 단위의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지자체 단위의 여성자원활동센터 설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2) 행정체계

노인자원봉사 관련 법률이 노인층의 자원봉사에 특화된 법률과 자원봉사활동에 특화된 법률로 크게 분류되었던 것처럼, 중앙 행정체계도 노인이라는 연령계층을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자원봉사활동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1) 보건복지부

노인자원봉사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시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전문분야의 노인자원봉사 개발, 노인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이라 할 수 있겠다. 전문분야 노인자원봉사 개발은 노인자원봉사활동이 단순 노력봉사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노인 적합 자원봉사 아이템 개발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 왔다는 점에서 노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노인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은 노인 스스로 자원봉사 단체를 결성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노인 주도적인 자원봉사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①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및 매뉴얼 제작·보급, ②전국 노인자원봉사단 양성 및 노인자원봉사 전문인력 양성, ③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및 사진·수기 공모전 등이 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관리체계로서 가장 일선에서 많은 성과를 보이는 곳은 전국 220여개 노인종합복지관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전담부서나 전담자 지정을 통해 복지관 이용회원중 상당수

를 봉사자로 활용하면서 복지관 운영에 참여토록 하거나, 외부 지역사회 요보호 노인들을 위해 봉사자를 연결하고, 전문적으로 특화된 노인봉사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전담기구로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을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기도 하고, 기타 특화된 봉사단을 운영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자원봉사 업무와 일반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일반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 전국의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을 자원봉사인증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업무를 관장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련 인증관리시스템(VMS)관리, 보험지원,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총괄기능과 조정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업무 주무부처로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하여 2011년 현재 전국 시군구에 총 248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를 추진하며,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운영형태는 민관혼합형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영과 위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전산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등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별로 교육 및 D/B 구축의 전문 인력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 인프라 확충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단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 안전모니터봉사단은 20~70대 전국 70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구성하여 취약지역 내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제보 및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실천과 대국민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전국 전문자원봉사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무료진료나 간병, 보일러 수리와 도배 등 집수리 등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다.

시군구 단위의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자원봉사활동의 중심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의 봉사자(단체)와 수요처를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센터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통계의 실질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식적 자원봉사 인정 보상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은 다양한 봉사자 계층 중 하나의 계층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특화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3) 기타 행정체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외의 타 부처에서는 중고령층 자원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고령층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각 부처별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4개 지역에서 노인자원봉사사업으로 책 읽어 주는 실버문화봉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문화교육과정을 수료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저소득층 아동, 시설의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책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해석을 전달하고 나누는 봉사활동으로 2009년 처음 실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5개 지역에서 중·고령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봉사클럽을 조직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요

리봉사, 육아·산모지원, 가사지원 등을 실시하는 취약계층지원 봉사클럽 및 소비자교육, 이동 소비자 상담, 소비자 고발상담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건전소비문화지원 봉사클럽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여건에 맞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광역 시도별 각 50-200명의 만 55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및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중고령자에게는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2005년부터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중고령자의 자원봉사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상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자원봉사 행정체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각 부처 또는 지자체가 별도로 중고령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또는 직접 구상하고 지원하는 형태의 행정체계를 띠고 있어, 중고령자의 자원봉사 개별 사업의 통합적 사업 확산 및 보급이 어렵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중고령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전달체계상 여러 유형의 기관들이 중고령자의 자원봉사사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행정체계를 지닌다는 것은 중고령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노인자원봉사를 관장하는 행정체계별 사업 관리 방법의 차이, 지원기준의 차이 등은 일선 현장의 혼선을 낳고 서로 다른 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중고령자 간의 차별을 낳을 수 있다. 최소연(2009)은 중고령자의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단체의 유기적 협력체계 미구축, 부처간의 업무 중복문제 및 비통합성, 지역성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됨에 따른 광범위한 자원봉사 활동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 2 절 기초통계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은 55세~ 60세가 210명(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표 4-8>에서 61세~ 65세로 188명(28%)였으며, 66세~ 70세는 137명(20%), 70세~ 75세는 89명(13%), 75세 이상은 42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응답자의 연령분포

구분	응답수	분포
55세 ~ 60세	210	31.39%
61세 ~ 65세	188	28.10%
66세 ~ 70세	137	20.48%
70세 ~ 75세	89	13.30%
75세 이상	42	6.28%
무응답	3	0.45%
합	669	100.00%

조사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137명(20%), 여성이 532명(79%)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의 <표 4-9>는 성별의 조사결과이다.

<표 4-9> 응답자의 성별분포

구분	응답수	분포
남성	137	20.48%
여성	532	79.52%
합	669	100.00%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층의 분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0>과 같다. 55세~ 60세 중 남성은 28명, 여성은 182명으로 큰 차

이를 보였다. 61세~ 65세 사이도 남성이 37명, 여성이 151명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표 4-10> 성별과 연령 비교표

		연령					합
		55세~60세	61세~65세	66세~70세	71세~75세	75세이상	
성별	남성	28	37	39	21	10	135
	여성	182	151	98	68	32	531
	합	210	188	137	89	42	666

응답자의 학력분포는 다음의 <표 4-11>와 같다. 고등학교 졸업이 43%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상이 24%, 중학교 졸업이 20%로 조사되었다.

<표 4-11> 응답자의 학력분포

구분		응답수	분포
최종학력	무학	16	2.39%
	초등학교졸업	64	9.57%
	중학교졸업	135	20.18%
	고등학교졸업	287	42.90%
	대졸이상	163	24.36%
	무응답	4	0.60%
	합	669	100.00%

응답자들의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135명(2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인 119명(18%)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16명(17%)으로 나타나 노년층이지만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응답자의 소득분포

구분		응답수	분포
경제적 수준	300만원 이상	116	17.34%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35	20.18%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93	13.90%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04	15.55%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19	17.79%
	50만원 미만	97	14.50%
	무응답	5	0.75%
	합	669	100.00%

2.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활동특성

설문응답자들의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통계분석결과를 보면 설문응답자의 봉사경험의 유무에 대한 응답은 ‘있다’는 사람이 588명(95.9%)이었으며, ‘없다’는 81명(12.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각 항목별 평균차이를 검정(t-검정)한 후, 자원봉사 봉사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정도와 빈도가 3가지 유형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4-13> 자원봉사경험의 유무 빈도분석 결과

봉사경험의 유무	빈도	백분율(%)
있다	588	95.9
없다	81	12.1
합계	669	100

자원봉사 참여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중 참여자가 113명, 비참여자가 24명으로 응답했다. 여성은 475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7명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참여비율이 남성은 82:17이고, 여성이 89:10으로 전체 참여비율인 87:12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자원봉사 참여자 성비

구 분		참 여	비참여	합
성 별	남성	113(82.48%)	24(17.52%)	137(100%)
	여성	475(89.29%)	57(10.71%)	532(100%)
	합	588	81	669

다음 <표 4-15>은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자 수이다. 55세~60세 구간에서는 참여자가 186명이며 비참여자는 24명, 61세~65세 구간에서는 참여자가 170명이며 비참여자는 18명, 66세~70세 구간에서는 참여자가 120명이며 비참여자는 17명, 70세~75세 구간에서는 참여자가 76명이며 비참여자가 13명, 75세 이상에서는 참여자가 35명이며 비참여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표 4-1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자 수

구분		참여	비참여	합
연령	55세~60세	186	24	210
		(88.57%)	(11.43%)	(100%)
	61세~65세	170	18	188
		(90.43%)	(9.57%)	(100%)
	66세~70세	120	17	137
		(87.59%)	(12.41%)	(100%)
	70세~75세	76	13	89
		(85.39%)	(14.61%)	(100%)
	75세이상	35	7	42
		(83.33%)	(16.67%)	(100%)
	합	587	79	666

다음은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한달에 2~4회라는 응답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주일에 2~3회라는 응답자도 137명, 한달에 한번이라는 응답자는 114명, 일주일에 4일이상 나가는 사람도 102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4-16> 자원봉사 참여빈도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한달에 한번	114	19.39
한달에 2~4회	235	39.97
일주일에 2~3회	137	23.30
일주일에 4일이상	102	17.35
합	588	100

응답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간은 2년 이상이 307명(52.21%)로 가장 많았다. 예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해오시던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년 ~ 2년 미만이라고 응답하신분들이 118명(20.07%)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이 88명, 6개월 미만이 74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4-17> 자원봉사활동 참여기간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6개월 미만	74	12.59
6개월 ~ 1년미만	88	14.97
1년 ~ 2년 미만	118	20.07
2년 이상	307	52.21
무응답	1	0.17
합	588	100

자원봉사 참여분야는 취미여가활동분야가 194명(32.99%)으로 가장 많은 중고령층이 참여하고 있었다. 취미여가활동은 지역어린이집, 지역복지시설

에서 재능을 나누는 활동을 말한다. 중고령층 본인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사회에 재능을 돌려주는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재가복지서비스가 111명(18.88%)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老)-노(老) 케어의 일환으로 지역독거노인방문봉사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교육활동에 99명(16.84%)이 참여하고 있었다. 교육활동은 서예교실, 충·효·예 교실 등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보호활동에도 많은 중고령층이 참여하고 계셨다. 환경보호활동에는 89명(15.14%)이 참여하여 지역 하천정화활동, 재생비누 만들기 등 참여중고령층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을 모두 생각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4-18>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교육활동	99	16.84
문화계승활동	36	6.12
환경보호활동	89	15.14
취미여가활동	194	32.99
재가복지 서비스	111	18.88
기타	59	10.03
합	588	100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는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215명(36.5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참여한 중고령층이 146명으로 응답하였고,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순으로 나타났다.

<표 4-19>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146	24.83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215	36.56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74	12.59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120	20.41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11	1.87
기타	22	3.74
합	588	100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중고령층의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중고령층이 50.68%로 가장 높았고,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자가 29.42%로 참여하고 계신 중고령층중 8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3%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0>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매우 만족한다	173	29.42
만족한다	298	50.68
보통이다	103	17.52
만족하지 못한다	9	1.53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5	0.85
합	588	100

반대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자가 21명(2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과,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라는 응답자가 17명(21%)으로 조사되었다.

<표 4-21>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구분	응답자수	백분율
시간이 없어서	21	26.25
건강상의 이유로	20	25.00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17	21.25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10	12.50
기타	13	15.00
합	81	100

3. 사회적 자본 수준

사회적 자본 수준에 대한 분석은 자원봉사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사회적 자본을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는데, 각 변수들에 대한 측정항목별로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이어서 각 항목별 응답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각 항목들의 변수군을 구분하였다.

1) 신뢰

사회적 자본 중 신뢰에 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간 신뢰가 평균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높음과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80%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3.70으로 나타났다. 거래관계에 대한 신뢰도는 3.43,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3.15,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3.11로 조사되었다.

반면 공공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3.00,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2.95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공공정책결정과정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치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항목별 표준편차는 대체로 0.7~0.8로 나타났고, 왜도와 첨도 등의 통계량을 볼 때 각 항목별 응답결과는 대체로 정규분포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2> 조사대상자의 신뢰 변수의 항목별 기술통계분석

문항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족간 신뢰	666	4.14	.796	-.665	.224
이웃에 대한 신뢰	662	3.70	.712	-.020	-.317
거래관계에 대한 신뢰	659	3.43	.764	.172	-.096
공무원에 대한 신뢰	664	3.15	.811	.125	.55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신뢰	664	3.00	.798	.041	.736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667	2.95	.836	-.056	.486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	666	3.11	.725	-.030	1.195

2) 상호 호혜적 규범

상호 호혜적 규범에 대한 응답결과는 타인을 도운 경험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은 2.82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도움 정도와 타인으로부터 느끼는 도움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도움에 대한 기대는 3.01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시절 자원봉사경험은 2.94로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자원봉사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내 입장과 다른 타인의 대한 입장 이해정도는 3.80으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3> 조사대상자의 호혜적 규범 변수의 항목별 기술통계분석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타인도움에 대한 기대	666	3.01	.774	-.138	.308
타인도움에 대한 경험	665	2.82	.969	.036	-.451
타인을 도운 경험	666	3.35	.921	-.124	-.143
젊은 시절 자원봉사경험	668	2.94	1.208	.013	-.884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	668	3.80	.733	-.798	1.411

3) 네트워크

네트워크 항목 중 인간관계 모임 참여정도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많이 참여 한다’라는 응답자가 205명으로 다음으로 많아 평균 3.28로 중고령층의 인간관계 모임 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서로의 고민을 거부감 없이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의 정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375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3.21로 나타나 중고령층의 고민상담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심정도는 3.23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 중고령층의 지역사회활동 경험은 5번이하가 227명으로 가장 많아 평균 2.85를 나타냈으며, 중고령층의 지역사회활동 관심도에 비해 실제 참여 경험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4> 조사대상자의 네트워크 변수의 항목별 기술통계분석

문항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고민상담 인간관계	667	3.21	.796	.366	.248
인간관계모임 참여정도	669	3.28	.855	.039	-.222
지역사회활동 관심정도	669	3.23	.857	.107	.031
지역사회활동 경험	668	2.85	1.343	.325	-1.134

4) 사회적 자본 구성개념의 요인분석

최종적으로 선정된 측정항목을 중심으로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된 개념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목 척도에 가장 널리 활용하는 Cronbach's alpha(α)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⁴⁾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할 구성개념 타당성⁵⁾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은 Kaiser 정규화를 지닌 Varimax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음의 <표 4-25>는 사회적 자본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잠재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신뢰성 분석결과 4개의 잠재변수 모두 α 값이 0.6 이상으로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측정변수의 요인분석결과 가족간 신뢰(Ⅱ-1), 이웃에 대한 신뢰(Ⅱ-2), 거래관계에 대한 신뢰(Ⅱ-3)를 같은 요인으로 묶여 '대인신뢰'라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고, 공무원 신뢰(Ⅱ-4), 정책결정과정 신뢰(Ⅱ-5), 국가기관 신뢰(Ⅱ-6), 민간기관 신뢰(Ⅱ-7)가 같은 요인으로 묶여 '기관신뢰'라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규범과 네트워크에 관한 문항의 경우 사전에 설정된 구분과 달리 타인 도움에 대한 기대(Ⅲ-1)와 타인 도움에 대한 경험(Ⅲ-2)은 같은 요인으로 묶여 이를 '호혜적 규범'이라는 잠재변수로 설정한 반면 타인을 도운 경험(Ⅲ-3)과 젊은 시절 자원봉사 경험(Ⅲ-4)은 고민상담 인간관계(Ⅳ-2), 인간관계 모임 참여정도(Ⅳ-3), 지역사회활동 관심정도(Ⅳ-4), 지역사회활동 경험(Ⅳ-5)과 함께 같은 요인으로 묶여 이를 '네트워크'라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각 요인별 세부문항의 구성내용은 '호혜적 규범'변수에 있어서만 사전에 설정된 요인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신뢰'변수와 '네트워크' 변수의 경우 당초 설계된 내용대로 요인이 구분되어 본 연

4)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알파값이 0.5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있어서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계수, 2005).

5) 요인부하값의 유의성 기준은 표본의 수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표본수가 50개일 경우에는 0.75 이상, 100개일 경우에는 0.55 이상, 150개일 경우에 0.45 이상, 250개일 경우에 0.35이상은 되어야 한다(김계수, 2005).

구에서는 최종적으로 4가지 요인을 잠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1요인(네트워크)의 고유치는 5.229(기여율은 37.863%, n=662), 제2요인(기관신뢰)의 고유치는 2.263(기여율은 15.086%, n=657), 제3요인(대인신뢰)의 고유치는 1.225(기여율은 8.168, n=650), 제4요인(호혜적 규범)의 고유치는 1.161(기여율은 7.743, n=663)로 나타나 요인분석에서 요구되는 고유값 1 이상인 요인들이 총 4개로 구분되어 분석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4가지 요인들에 대해 각 응답자들의 4가지 요인별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산정하여 4가지 요인들이 응답자 특성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표 4-25> 사회적 자본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신뢰 계수
대인 신뢰	가족간 신뢰	.259	.069	.751	-.074	.748 (n=650)
	이웃에 대한 신뢰	.227	.164	.818	.124	
	거래관계에 대한 신뢰	.149	.287	.713	.230	
기관 신뢰	공무원에 대한 신뢰	.143	.776	.182	.095	.867 (n=657)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신뢰	.090	.880	.140	.005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080	.899	.070	-.006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	.144	.769	.107	.103	
규범	타인도움에 대한 기대	.213	.063	.159	.802	.668 (n=663)
	타인도움에 대한 경험	.179	.065	.007	.847	
네트워크	타인을 도운 경험	.635	.058	.227	.371	.807 (n=662)
	젊은 시절 자원봉사경험	.487	.128	.177	.153	
	고민상담 인간관계	.642	.091	.301	.196	
	인간관계모임 참여정도	.775	.087	.163	.086	
	지역사회활동 관심정도	.778	.122	.154	.153	
	지역사회활동 경험	.801	.104	.005	-.031	
고유값(eigen value)		5.229	2.263	1.225	1.161	
기여율(%)		34.863	15.086	8.168	7.743	
KMO: 0.861, Bartlett's test(근사 χ^2): 3920.434 (Sig: .000)						

제 3 절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1.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평균차이 검정(가설1,2)

1) 신뢰항목에 분석결과

다음의 표는 신뢰항목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에 따른 사회적 자본 평균 비교의 결과이다. 가족 간 신뢰항목의 경우 참여그룹과 비참여그룹간의 신뢰항목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원봉사 참여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족간의 신뢰는 다른 영향요인보다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이웃에 대한 신뢰는 참여그룹과 비참여그룹간의 큰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값이 4.349($p < 0.05$)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웃에 대한 신뢰는 자원봉사참여자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관계에 대한 신뢰도 참여그룹과 비참여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거래관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자원봉사 참여자의 거래관계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참여그룹과 비참여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공공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신뢰와 국가기간에 대한 신뢰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공히 두 그룹 다 낮은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군부독재정권과 비민주사회를 경험한 노년층의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낮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와 거주지역의 안전에 대한 신뢰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민간부문의 사회적 자본은 참여그룹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6> 신뢰 항목에 대한 자원봉사 유무에 따른 차이

항목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가족간 신뢰	참여	588	4.15	0.790	1.217	0.224
	비참여	81	4.04	0.849		
이웃에 대한 신뢰	참여	588	3.74	0.714	4.349	0.000
	비참여	81	3.38	0.624		
거래관계에 대한 신뢰	참여	588	3.47	0.761	3.678	0.000
	비참여	81	3.14	0.689		
공무원에 대한 신뢰	참여	588	3.18	0.820	2.531	0.012
	비참여	81	2.94	0.681		
공공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신뢰	참여	588	3.00	0.819	0.264	0.792
	비참여	81	2.98	0.595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참여	588	2.96	0.857	0.686	0.493
	비참여	81	2.89	0.656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	참여	588	3.13	0.738	2.122	0.034
	비참여	81	2.95	0.593		

2) 상호 호혜적 규범의 분석결과

상호 호혜적 규범의 분석결과 타인의 도움에 대한 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그룹의 타인의 도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최근에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은 참여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항목도 참여그룹과 비참여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타인을 도와준 경험도 참여그룹과 비참여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 수준, 타인의 입장 이해정도도 참여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7> 상호 호혜적 규범의 평균차이 분석결과

항목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타인도움에 대한 기대	참여	588	3.05	0.774	3.415	0.001
	비참여	81	2.74	0.707		
타인 도움을 받은 경험	참여	588	2.86	0.978	2.960	0.003
	비참여	81	2.53	0.826		
타인을 도와준 경험	참여	588	3.42	0.913	5.557	0.000
	비참여	81	2.83	0.759		
자원봉사 활동 경험	참여	588	3.01	1.211	3.839	0.000
	비참여	81	2.46	1.055		

3) 네트워크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네트워크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인간관계의 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의 정도, 다양한 인간관계의 모임참여정도,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활동 경험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참여그룹과 비참여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관심도는 참여그룹이 3.29로 나타났고, 비참여그룹이 2.79로 나타나 단편적인 관심도는 참여그룹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8> 네트워크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항목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고민 공유 인간관계	참여	588	3.27	0.798	4.920	0.002
	비참여	81	2.81	0.638		
인간관계모임 참여정도	참여	588	3.35	0.844	6.072	0.039
	비참여	81	2.75	0.738		
지역사회 활동 관심도	참여	588	3.29	0.848	4.984	0.203
	비참여	81	2.79	0.791		
지역사회활동 경험	참여	588	3.01	1.328	8.431	0.000
	비참여	81	1.73	0.811		

2.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가설1, 2)

앞에서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가 사회적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 자원봉사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사회적 자본 측정변수들의 평균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대체로 사회적 자본 측정항목들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통계분석으로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 변수들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 자본의 4가지 구성요소들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자원봉사 미참여자를 제외한 참여자들의 응답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참여빈도는 월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참여기간은 조사 시점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력을 통해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4가지 구성요소는 앞서 논의한 대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가지 잠재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V-1), 학력(V-3), 경제수준(V-4)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1)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보면 참여빈도는 0.143($p<0.01$), 참여기간은 0.223($p<0.01$)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네트워크 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제변수들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보면 연령은 0.060($p<0.1$), 학력은 0.112($p<0.05$), 경제수준은 -0.180($p<0.01$)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증가할수록 네트워크 구축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수준이 증가할수록 네트워크 구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N=556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Beta			허용도	VIF
상수	-1.143	.253		-4.519	.000		
참여빈도	.143	.042	.144	3.436	.001	.856	1.168
참여기간	.223	.037	.247	5.968	.000	.875	1.143
연령	.060	.034	.073	1.752	.080	.863	1.159
학력	.112	.044	.111	2.561	.011	.799	1.251
경제수준	-.105	.026	-.180	-4.017	.000	.751	1.332

주: $F=23.319(p<0.01)$, $R^2=0.175$, $DW=1.537$

2)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기관신뢰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사회적 자본 중 기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관신뢰의 경우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회귀

계수가 참여빈도는 $-0.034(p=0.474)$, 참여기간은 $-0.015(p=0.722)$ 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통제변수들의 경우 연령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132(p<0.01)$ 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신뢰는 증가하였지만 학력과 경제수준은 기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기관신뢰에 미치는 영향

N=556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Beta			허용도	VIF
상수	-.016	.291		-.055	.956		
참여빈도	-.034	.048	-.033	-.716	.474	.856	1.168
참여기간	-.015	.043	-.016	-.356	.722	.875	1.143
연령	.132	.039	.152	3.355	.001	.863	1.159
학력	-.013	.050	-.012	-.257	.797	.799	1.251
경제수준	-.031	.030	-.050	-1.029	.304	.751	1.332

주: $F=2.373(p<0.05)$, $R^2=0.021$, $DW=1.267$

3)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사회적 자본 중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인신뢰의 경우 참여기간이 대인신뢰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참여빈도는 $-0.002(p=0.971)$ 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반면, 참여기간은 $0.098(p<0.05)$ 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자본 중 대인신뢰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특이한 것은 통제변수들 중 연령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134(p<0.01)$, 경제수준은 $-0.050(p<0.1)$ 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증가할수록 대인신뢰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0.078(p<0.1)$ 로 학력이 증가할수록 대인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제거한 후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대인신뢰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1>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N=556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Beta			허용도	VIF
상수	-.105	.272		-.384	.701		
참여빈도	-.002	.045	-.002	-.036	.971	.856	1.168
참여기간	.098	.040	.107	2.437	.015	.875	1.143
연령	-.134	.037	-.161	-3.649	.000	.863	1.159
학력	.078	.047	.076	1.662	.097	.799	1.251
경제수준	-.050	.028	-.084	-1.773	.077	.751	1.332

주: F=8.923(p<0.01), R2=0.075, DW=1.815

4)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호혜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정도와 참여기간이 사회적 자본 중 호혜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호혜적 규범의 경우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참여기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015(p=0.704)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자원봉사활동 참여기간의 회귀계수가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의 경우 연령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가 -0.168(p<0.0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호혜적 규범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지만 학력과 경제수준은 호혜적 규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호혜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

N=556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Beta			허용도	VIF
상수	.666	.276		2.412	.016		
참여빈도	-.045	.046	-.044	-.983	.326	.856	1.168
참여기간	.015	.041	.017	.380	.704	.875	1.143
연령	-.168	.037	-.201	-4.503	.000	.863	1.159
학력	-.025	.048	-.024	-.524	.600	.799	1.251
경제수준	-.026	.028	-.044	-.928	.354	.751	1.332

주: F=6.035(p<0.01), R2=0.052, DW=1.602

3. 자원봉사활동 동기와 분야별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가설 3)

1) 자원봉사 동기별 사회적 자본의 차이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동기를 이웃돕기, 여가시간 활용, 자신의 재능 활용, 신앙의 실천, 친분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문항 I-7). 이러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가설 3) 앞서 분석한 요인점수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4가지 요인들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원봉사 참여 동기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4가지 변수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분야가 무엇인지 여부는 사회적 자본 축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요인 2(기관신뢰)의 경우 집단1(이웃돕기)이 집단5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집단(자신의 재능 활용, 신앙실천, 친분 구축, 기타)에 비해 기관신뢰 요인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차이를 보면 집단1과 집단2(평균차이 0.493, $p<0.01$), 집단1과 집단3(평균차이 0.644, $p<0.01$), 집단1과 집단4(평균차이 0.686, $p<0.01$), 집단1과 집단6(평균차이 0.714, $p<0.05$)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분석결과는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여가활동, 재능활동, 친분 구축 등의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비해 사회적 자본의 구축 정도가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요인 1(네트워크)의 경우 이타적 동기를 지닌 집단1이 다른 집단들보다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은 집단은 집단5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났다. 즉, 집단1과 집단5의 평균차이 1.176($p < 0.01$)으로서 이웃돕기를 목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친분구축을 목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에 비해 네트워크 구축이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단1과 집단 3을 제외하면 집단1과 집단2(평균차이: 0.138), 집단1과 집단4(평균차이: 0.150), 집단1과 집단 6간(평균차이: 0.063)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집단1의 네트워크 구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다만 요인4(규범)의 경우 1번 집단과 4번 집단 간에만 차이가 있고, 요인3(대인신뢰)의 경우 2번 집단과 4번 집단, 4번 집단과 5번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타적 동기를 지닌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요컨대 대인신뢰와 규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신뢰와 네트워크 변수의 경우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자가 이기적 동기에 의한 참여자보다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요인1(네트워크)의 경우 이 밖에도 집단2와 집단3, 집단2와 집단5, 집단3과 집단4, 집단3과 집단5, 집단4와 집단5, 집단5와 집단6 간에도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났다.

<표 4-33> 자원봉사 동기별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

변수	분산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ig.
네트워크	집단간 분산	24.185	5	4.837	5.239	.000
	집단내 분산	515.192	558	.923		
	총분산	539.376	563			
기관신회	집단간 분산	39.092	5	7.818	7.764	.000
	집단내 분산	561.929	558	1.007		
	총분산	601.021	563			
대인신회	집단간 분산	16.212	5	3.242	3.323	.006
	집단내 분산	544.428	558	.976		
	총분산	560.640	563			
규범	집단간 분산	15.727	5	3.145	3.215	.007
	집단내 분산	545.871	558	.978		
	총분산	561.597	563			

주: 등분산 검정결과 Levene's test 값은 요인1이 3.039($p<0.05$), 요인2가 3.375($p<0.01$), 요인3이 0.308($p=0.908$), 요인4가 1.530($p=0.178$)로 요인3과 요인4만 등분산 가정 성립.



<표 4-34> 자원봉사 동기별 사회적 자본변수 요인점수 평균 비교

변수	집단(참여동기)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네트 워크	불우이웃 돕기	138	.1635	1.115	.0950
	여가시간 활용	208	.0254	.891	.0618
	자신의 재능활용	69	.465	.920	.111
	신앙 실천	119	.013	.945	.087
	친분 구축	10	-1.013	.854	.270
	기타	20	.100	.755	.169
	합계	564	.095	.979	.041
기관 신뢰	불우이웃 돕기	138	.448	1.059	.090
	여가시간 활용	208	-.045	.991	.069
	자신의 재능활용	69	-.196	.695	.0837
	신앙 실천	119	-.238	1.025	.0940
	친분 구축	10	-.121	1.314	.416
	기타	20	-.266	1.311	.293
	합계	564	.007	1.033	.044
대인 신뢰	불우이웃 돕기	138	.025	.966	.082
	여가시간 활용	208	-.087	.964	.067
	자신의 재능활용	69	.072	1.062	.128
	신앙 실천	119	.265	1.014	.093
	친분 구축	10	-.746	1.016	.321
	기타	20	-.160	.941	.210
	합계	564	.020	.998	.042
규범	불우이웃 돕기	138	-.164	1.025	.087
	여가시간 활용	208	.021	.927	.064
	자신의 재능활용	69	.066	1.040	.125
	신앙 실천	119	.311	.976	.089
	친분 구축	10	.056	.836	.264
	기타	20	-.194	1.296	.290
	합계	564	.035	.999	.042

2) 자원봉사 분야별 사회적 자본의 차이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분야를 교육활동, 문화계승활동, 환경보호활동, 취미·여가활동, 재가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문항 I-6). 이러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분야별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분석한 요인점수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4가지 요인들의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원봉사 분야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기관신뢰 변수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분야는 사회적 자본 축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5> 자원봉사 분야별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

변수	분산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Sig.
네트워크	집단간 분산	5.498	5	1.100	1.135	.341
	집단내 분산	531.965	549	.969		
	총분산	537.463	554			
기관신뢰	집단간 분산	20.791	5	4.158	4.305	.001
	집단내 분산	530.271	549	.966		
	총분산	551.062	554			
대인신뢰	집단간 분산	6.611	5	1.322	1.346	.243
	집단내 분산	539.226	549	.982		
	총분산	545.837	554			
규범	집단간 분산	4.592	5	.918	.922	.466
	집단내 분산	546.603	549	.996		
	총분산	551.195	554			

주: 등분산 검정결과 Levene's test 값은 요인1이 4.972($p<0.01$), 요인2가 2.831($p<0.05$), 요인3이 0.751($p=0.586$), 요인4가 1.541($p=0.175$)로 요인3과 요인4만 등분산 가정 성립.

다만 분산분석결과 분야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관신뢰 변수의 경우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취미·여가활동분야에 비해 환경보호활동분야의 평균이 더 높고(평균차이: -0.370 , $p<0.1$), 취미·여가활동분야에 비해 재가복지서비스분야의 평균이 더 높은(평균차이: -0.499 , $p<0.01$)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미·여가활동분야 자원봉사 참여자보다 환경보호활동분야와 재가복지서비스분야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기관신뢰 요인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관신뢰 변수를 제외하면 다른 변수들의 경우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에 자원봉사분야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4.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 변수들의 경로분석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4가지 구성요소로 설정한 네트워크, 규범, 대인관계신뢰 및 기관신뢰 변수와 어떠한 구조적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분석한 요인분석결과를 토대로 AMOS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은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고, 모든 경로계수의 기각비(Critical Ratio: C.R.)가 일정 기준(1.96) 이상이면서 경로계수의 유의확률이 일정 기준 이하(0.05)의 값을 나타내는 모형이 구축될 때까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면서 최적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최종적으로 아래 <표 4-30>과 같은 경로계수를 도출하였는데, 표준화 경로계수를 보면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네트워크에 0.479(CR=4.032, $p<0.01$), 네트워크는 규범에 0.779(CR=9.984, $p<0.01$), 규범은 기관신뢰에 0.399(CR=7.020), $p<0.01$, 규범은 대인관계 신뢰에 0.674(CR=8.575, $p<0.01$)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은 네트워크 구축에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크는 다시 호혜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호혜적 규범이 최종적으로 대인관계 신뢰와 기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각 잠재변수들이 개별 관측변수들에 대한 경로계수를 보면 아래 <표 4-30>과 같이 모든 변수들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대인관계신뢰, 기관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 5가지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각 관측변수들이 각 요인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6>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경로분석결과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기각비 (C.R)	유의 확률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네트워크	←	자원봉사	.538	.133	.479	4.032	***
규범	←	네트워크	.445	.045	.779	9.984	***
기관신뢰	←	규범	.466	.066	.399	7.020	***
관계신뢰	←	규범	.640	.075	.674	8.575	***
I 5	←	자원봉사	1.000		.731		
I 4	←	자원봉사	.467	.114	.373	4.078	***
II 4	←	기관신뢰	1.000		.732		
II 5	←	기관신뢰	1.164	.055	.865	21.038	***
II 6	←	기관신뢰	1.210	.058	.859	20.944	***
II 7	←	기관신뢰	.849	.050	.694	17.085	***
II 1	←	관계신뢰	1.000		.605		
II 2	←	관계신뢰	1.240	.090	.836	13.775	***
II 3	←	관계신뢰	1.122	.084	.709	13.357	***
III 2	←	규범	1.000		.523		
III 1	←	규범	.914	.093	.600	9.818	***
IV 5	←	네트워크	1.000		.661		
IV 4	←	네트워크	.729	.045	.755	16.233	***
IV 3	←	네트워크	.702	.044	.729	15.798	***
IV 2	←	네트워크	.619	.041	.691	15.129	***
III 4	←	네트워크	.642	.059	.472	10.839	***
III 3	←	네트워크	.731	.048	.704	15.3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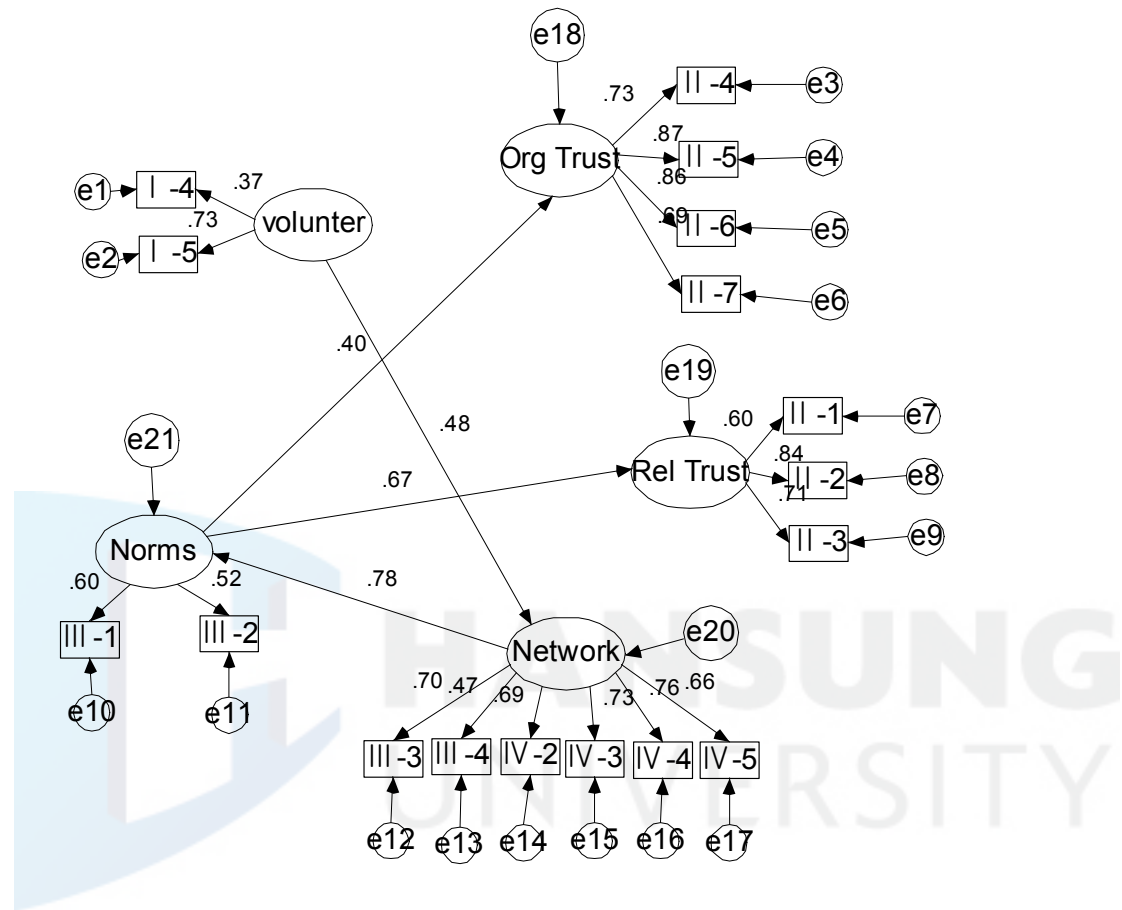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통계치들을 보면 먼저 Chi제곱값이 516.265, CMIN이 516.265 ($p < 0.01$), NFI(Normed Fit Index)가 0.877, RFI(Relative Fit Index)가 0.837, IFI(Incremental Fit Index)가 0.902, TLI(Tucker-Lewis Index)가 0.868, CFI(Comparative Fit Index)가 0.901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⁷⁾ 한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072로 나타나 0.05보다는 값이 크지만 0.1보다 작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상의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과 4가지 사회

7) NFI, RFI, IFI, TLI, CFI는 모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통계치들로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8) 다만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가 626.265로 분석되었다.

적 자본 변수들 간의 최종적인 경로모형을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아래 <그림 IV-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IV-1>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변수의 경로분석결과



chi-square=516.265
AIC=626.265
GFI=.931

주1: 잠재변수명 volunteer는 자원봉사활동변수, Norms는 호혜적 규범 변수, Network은 네트워크 변수, Rel. Trust는 대인신뢰 변수, Org. Trust는 기관신뢰 변수임
주2: 각 잠재변수들을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은 앞의 부록 1(설문지) 참조.

제 4 절 분석결과 종합 및 논의

1. 중고령층의 사회적 자본 수준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뢰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다음의 <표 4-30>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09년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결과와 본 조사의 신뢰항목 연구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자본 실태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비교결과 모든 항목에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09년 조사결과와 본 연구의 조사결과 각 항목간 차이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 두 조사에서 가족 간 신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나머지 항목들도 비슷한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공공정책결정과정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의 경우 두 조사에서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공공조직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37> 신뢰항목 조사결과 비교표

구 분	2009년 실태조사		본 연구의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간 신뢰	3.76	0.500	4.14	0.797
이웃에 대한 신뢰	2.90	0.630	3.70	0.713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신뢰	1.93	0.800	3.00	0.795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2.56	0.770	2.95	0.834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	2.49	0.760	3.11	0.72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9).

다음으로 상호 호혜적 규범에 대한 조사결과도 다른 사회적 자본 측정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4-38>과 같다. 비교결과 신뢰와 달리 상호

호혜적 규범 항목에 대해서는 안병일(2009)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타인도움에 대한 경험’과 ‘타인을 도움 경험’ 항목은 기존 연구결과가 더 높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8> 상호 호혜적 규범 항목의 응답결과

구 분	안병일(2009)		본 연구의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타인도움에 대한 기대	3.00	0.739	3.01	0.775
타인도움에 대한 경험	3.31	0.802	2.82	0.967
타인을 도운 경험	3.58	0.717	3.35	0.921
젊은 시절 자원봉사경험	2.93	0.938	2.94	1.209

네트워크 항목의 경우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안병일(2009)의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네트워크 항목은 본 연구의 조사결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39> 네트워크항목 응답결과

항 목	2009년 조사결과		본 연구의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민상담 인간관계	3.04	0.673	3.21	0.795
지역사회활동 관심정도	2.63	0.833	3.23	0.857

2. 가설검정결과 종합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중 학력, 연령,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후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3가지 각 구성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대인신뢰, 기관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두 가지 독립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I-4와 가설 II-4는 채택할 수 있다. 대인신뢰의 경우 참여기간만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 II-1은 채택할 수 있지만 참여빈도가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I-1은 기각되었다. 기관신뢰와 호혜적 규범의 경우 다중회귀분석결과 유의미한 회귀계수가 도출되지 않아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기관신뢰와 호혜적 규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I-2, I-3 및 가설 II-2, II-3은 모두 기각되었다.

요컨대 네트워크와 대인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에서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대인신뢰와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설계한 총 8가지 가설 중에서 3가지 가설은 채택이 될 수 있고, 나머지 5개는 통계적으로 기각되었다. 즉,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가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I-4),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대인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II-1),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II-4)는 본 연구 결과 채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를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분하여 이타적 동기의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사회적 자본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3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이 아닌 집단간 평균 차이분석(ANOVA)을 실시하였기에 정확한 가설검정은 어렵지만 분석결과 대체로 기관신뢰와 네트워크에 대한 가설의 채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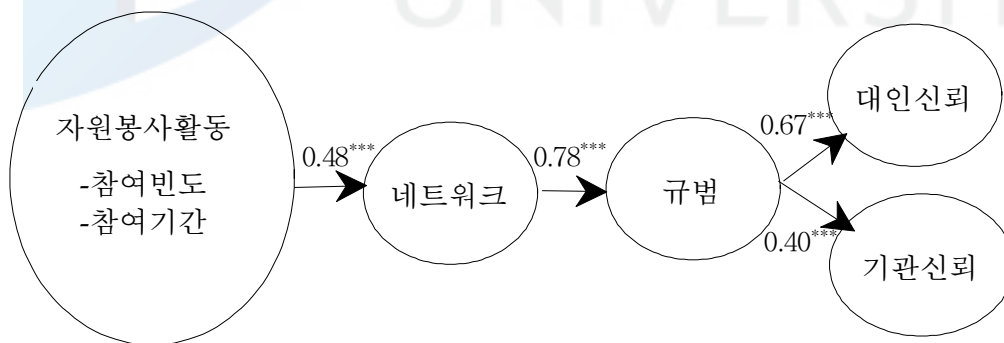
<표 4-40> 분석결과의 요약

구분	가설	채택여부	계수방향
가설 1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대인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가설 1-2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기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가설 1-3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호혜적 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가설 1-4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가설 2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대인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가설 2-2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기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가설 2-3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호혜적 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가설 2-4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가설 3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가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보다 사회적 자본 축적이 높을 것이다.		
가설 3-1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가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보다 대인신뢰가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 3-2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가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보다 기관신뢰가 높을 것이다.	채택	+
가설 3-3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가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보다 호혜적 규범이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 3-4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가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보다 네트워크가 높을 것이다.	부분 채택	+

3.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의 구조모형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각 구성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별 가설들을 검정한 이후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본 연구가 가정한 연구모형과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크가 호혜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며, 호혜적 규범이 최종적으로 대인신뢰와 기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각 변수들 간의 경로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경로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 경로계수들의 유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한 부분으로서 본 연구를 통해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중고령층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IV-2> 중고령층의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 변수의 구조모형 결과 요약



* $p < 0.01$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 및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제 1 절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61세에서 65세 연령층이 자원봉사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1세는 이전에 직장에서 은퇴하였지만 새로운 직업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나이다. 본인의 경험을 사장시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차원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참여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계기는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즉 이타적 동기에 의해서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았다. 다른 사람의 권유나 기관의 권유보다는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활동하는 단체의 정기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다음으로 많았는데 앞으로 중고령층 단체들의 활동에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혼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에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단체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접근성이 더 크기 때문에 권장되어야 한다.

셋째, 자원봉사 참여정도는 한달에 2~4회가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2~3회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즉 1주일에 한번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

고 있는 중고령층이 대부분이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 참여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자원봉사는 처음에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참여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자원봉사 참여분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취미여가활동 보조가 가장 많았지만, 재가복지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들도 많아서 노-노케어 등 새로운 자원봉사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는 여가시간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노년의 여유시간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자원봉사라는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중고령층의 비참여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중고령층들이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참여실태 및 경제적 가치’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행하고 있는 생산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GDP가 2000년에는 7.1%에서 2010년에는 10%를 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순희(2005)의 ‘노인의 가사노동 기여도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에서는 노인이 다양한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고 자녀들의 맞벌이 문화가 증가하면서 손자를 돌보거나, 살림을 도와주는 형태의 가사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건강상의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고령층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종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와 ‘매우 만

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가 참여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만족의 이유를 좀더 분석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비교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중고령층과 비교하여 사회적 자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과 그렇지 않은 중고령층과 사회적 자본의 지표를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의 사회적 자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원봉사가 가져온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신뢰와 호혜성 그리고 네트워크 관점이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가 여가 시간의 활용 또는 전문인력의 활용 관점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의 하나의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층의 경우 사회적 자본 형성이 전체 국민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사회적 자본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후 어려운 시기를 겪어온 중고령층들이지만 가족과 이웃에 대한 신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혜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아직까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중고령층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우리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애정이 더 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셋째, 자원봉사의 활동여부와 상관없이 중고령층은 가족에 대한 신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정책결정과정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계는 다른 요인들과는 별개로 강한 신뢰로 뭉쳐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공공정책결정과정(국회)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두 요인은 낮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공부문이 정의롭다는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자원봉사 참여의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기간과 참여정도(횟수)를 독립변수로 한 분석에서도 자원봉사의 영향력이 다른 요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과 학력이 높은 경우에도 사회적 자본 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분적으로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났지만 자원봉사의 경우 일관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와 대인신뢰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에서는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와 참여기간이 증가할수록 대인신뢰와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빈도가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대인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참여기간은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를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분하여 이타적 동기의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사회적 자본이 더 높을 것이라는 논의는 대체로 기관신뢰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의 중고령층은 험난한 현대사를 몸소 겪고 성장한 대한민국의 산 증인들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지만 가족에게 헌신적이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동료들과 우애를 쌓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입시경쟁과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보다 높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고령층의 재능나눔 등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가는 현 시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일정 정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그동안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연구가, 자원봉사의 긍정적인 영향이 개인의 만족도, 또는 여가시간의 활용만을 측정하는 개인 차원의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즉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가하고 있는 중고령층 인구에 대한 사회적 자본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복리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새롭게 조명되는 이유이다. 향후 중고령층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 인식을 도모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함과 더불어 노년기의 적응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관점은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의 여가활동차원에서 벗어나 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스스로 실천하는 봉사활동이어야 하며, 노년기에는 자원봉사의 수혜자로서, 또는 공급자로서의 필요한 활동으로 서로 문제의 해결을 돕는 활동으로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의 요구이다. 프로그램을 일상생활중심의 활동과 과거 다양한 경험이나 능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홍보가 아직은 비공식적인 통로에 의존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참가방법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고령층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과 전문경력과의 연계 및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경력의 인정으로 고령자 취업 알선에 우선권 부여, 전문직 자원봉사활동은 재취업의 경력인정, 상해보험제도로써 자원봉사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보상, 노후 봉사활동에 대한 저축방식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창범(2006).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고승희·김성운(2007).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고은숙(2002).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리뷰」 8,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구혜정(2006).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평생교육」,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전국 120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보도 자료
- 권영세(2008).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귀분(2005).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김남선 · 김만희(2000).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술지」 10(2), 지역사회개발학회.
- 김왕배 · 이경용(2002). “사회 자본으로서의 신뢰와 조직몰입”, 「한국사회학」 36(3), 한국사회학회.
- 김정원(2007).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 한국의 비영리 자활지원조직 사례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준(2004).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상준(2004). “부르디외, 콜맨,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

- 사회학」 38(6), 한국사회학회.
- 김동원(2005). “자원봉사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동기”, 「한국행정학보」 39(2), 한국행정학회.
- 김미혜(2006)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미혜·정진경(2003). “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 활동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4,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숙경(2002). “재가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속 방안에 관한 연구: 역할관계 관리 실천모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5, 노인복지연구회.
- 김영호(2003). 「자원복지의 이론과 실천」, 서울: 학현사.
- 김영호(2005).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만족도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청소년학회.
- 김윤동(2006).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순(1988).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한경혜(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노인복지연구」 21, 노인복지연구회.
- 김태룡(2005).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한국행정학회.
- 김태룡(2009). “사회자본론의 적실성에 관한 비판적 함의”, 「한국거버넌스학회지」, 16(3), 한국거버넌스학회.
- 김태룡(2010). 「행정이론」, 서울: 대영문화사
- 김태룡·안희정(2009). “사회자본이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나영선·이재열·한준상·이경묵·한성안 공저(2005).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원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류기형 외(1999). 「자원봉사론」, 서울: 양서원.
- 박명순(2003).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태영(2004). 「자원봉사론」, 서울: 백산출판사.
- 박희봉 외(2001).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한국행정학보」 제34(4), 한국행정학회.
- 박희봉(2002).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정부학연구」 8(1),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 박희봉(2009).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서울: 조명문화사.
- 박희봉·김명환(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한국행정학회.
- 박희봉·이희창·김동욱(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한국행정학회.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2008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09). 「노인자원봉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서혜숙(2006).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만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진광(1999).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논리”, 「지역사회개발연구」 24(1), 지역사회개발학회.

- 소진광. (2000). “지방자치와 사회적 자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한국지방자치학회.
- 소진광(2004).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화”, 「지방행정연구」 18(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신재명(2003). 「사회복지학 총론」, 서울: 신창출판사
- 안병일(2009). 「청소년단체 참여활동이 사회적 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은하(2005).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청시 외(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 박영사
- 유재원(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한국정책학회.
- 윤미혜(1995). 「노인의 고독감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금룡, 강은경, 박준기, 구재관, 조봉실, 이기백, 이권일, 박상욱(2009). 「노인자원봉사실천론」, 서울: 학지사.
- 이인수(2001). “한국 노인자원봉사의 의미와 실태”, 「노인복지연구」 12, 노인복지연구회.
- 이현기(2010),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사회자본 :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지」 50, 한국노인복지학회.
- 임승빈 · 이승중.(2005). “지방정부 역량과 자치구의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서울시 12개 자치구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9(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정순(2004).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가 노인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대성(2006).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경아(2000). 「노인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순돌·이은주(2005). “자원봉사활동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면접촉과 비대면 접촉”. 「노인복지연구」 53, 노인복지연구회.
- 정희영(2007). 「고령화시대의 자원봉사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일(1988). “자원봉사 동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97, 사회복지연구회.
- 지경애(2004).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소연(2009). “시민자원 봉사활동을 통한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노인 사회참여활성화방안 자료집」,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최은숙(2005). 「인정보상 요인이 자원봉사행동의 지속도와 강도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일섭(1995). 「한국사회복지기관에 있어서의 자원동원 및 개발」, 서울: 한국복지재단.
-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1997). 「자원봉사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서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고령화사회의 인적자원정책: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보고서.
- 행정안전부(2008). 「2008 전국자원봉사실태 조사연구: 1999-2008년 자원봉사현황 비교」.
- 행정안전부(2009). 「2008전국자원봉사센터 현황」.
- 홍영란(2006).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서울: 한

국교육개발원.

홍영란(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외(2007). 「사회적 자본의 정책의제화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황정향(2007). 「학생상담자원봉사가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 국외문헌

- Baker, W. (1990). "Market Networks and Corporat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2).
- Baum, F., Modra, C., Bush, R., Cox, E., Cooke, R. & Potter, R. (1999). "Volunteering and social capital: An Adelaide Study", *Australian Journal on Volunteering* 4(1).
- Bourdieu, P. (1986). "The Form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 G. Richardson. New York: Green Wood Press.
- Brudney, D. (1998). *Volunteer Program in the Public Sector*, San Francisco: Jossey-Bass.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8). *Current Population Survey* : U.S.A.
- Coleman, J.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Co.
- Francies, G. R. (1993). "The volunteer needs profile: A tool for reducing turnover", *Journal of Volunteer Administration*.
- Fukuyama, F. (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Y. : Free Press.
- Fukuyama, F. (1999).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IMF Conference on Second Generation Reforms.
- Helping out (2008). *National Survey of Volunteering*, Office of Cabinet : U. K.
- Hunter, K. I. & Linn, M. W. (1981). "Psyc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 elderly volunteers and non-volunte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3).
- Luoh, M-C., & Herzog, A. R. (2002). "Individual consequences of volunteer and paid work in old age: Health and mora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 Mackinnon, D. P., Lockwood, C. M., West, S. G., and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 *Psychological Methods* 7(1).
- Moen, P., Dempster-McClain, D., & Williams, R. M. (1992). "Successful aging: A life-course perspective on women's multiple roles and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 Morrow-Howell, N., Kinney, S., & Mann, M. (1999). "The perceived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nd educational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2.
- OECD(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OECD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 Oman, D., Thoresen, C. E., & McMahon, K. (1999). "Volunteerism and morality among the community-dwelling elderly",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4.
- Portes, Alejandro, & Sensenbrenner, Julia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 Putnam, R. (1995). *"Bowling Alone : American's Declining social*

-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 Putnam, R.(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 Touchstone.
- Putnam, R.(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N.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 Rietschlin, J.(1998).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
- Schultz, M. E.(198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s Review* 51.
- Statistics Bureau(2006). *Survey of Time Use and Leisure Activity*, Japan.
- Statistics Canada(2007). *National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 Thoits, P. A., & Hewitt, L. N.(2002).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 Trukman, B .W, & Jensen,M A.C.(1997). "Stages of small group Development revisited", *Group and Organizational Studies* 2.
- Woolcock, Michael & Narayan, Deepa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Theory , Research, and Polic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 Wuthnow, R. (1991). "The Voluntary Sector: Legacy of the Past, Hope for the Future?", In *Between States & Markets: The voluntary sector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R. Wuthnow,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부록] 설문지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박사학위 논문 연구의 일부분으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노년의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정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른 은퇴와 고령화 사회에서 중고령층의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며, 제시된 응답요령에 따라 잘 읽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도교수 : 권 해 수

연구자 : 김 영 옥

(011-9706-1026 / yok8817@hanmail.net)

I. 자원봉사 활동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문항을 읽고
 시고 귀하의 경우에는 어떠하신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동
 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 표나 O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1. 현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1) 참여하고 있다(번호 3. 으로 가십시오)
 - 2) 참여하고 있지 않다
2. 귀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시간이 없어서
 - 2) 건강상의 이유로
 - 3)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 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 5) 기타()
3.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1) 스스로 참여
 - 2) 경로당,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등 기관의 권유로
 - 3) 주위 사람의 권유
 - 4) 종교단체, 동호회 등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에 참여
 - 5) 기타()
4.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한달에 1회
 - 2) 한달에 2 ~ 4회
 - 3) 일주일에 2 ~ 3회
 - 4) 일주일에 4일 이상
5. 귀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II. 사회적 자본 중 신뢰에 관한 내용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신뢰하고 있다	매우 신뢰하고 있다
1. 귀하는 가족 간에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2. 귀하는 주변 이웃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3. 귀하는 주변 상인들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4. 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입니까?					
5. 귀하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6. 귀하는 국가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군대 등)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7. 귀하는 민간기관(기업체, 언론, 노동조합, 대학, 연구소 등)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8.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각종 위험(범죄, 사고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2)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3) 보통이다 4)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5)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III. 사회적 자본 중 상호 호혜적 규범에 관한 내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많다	매우 많다
1.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입니 까?					
2. 귀하는 최근에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 은 경험이 있습니까?					
3. 귀하는 최근에 타인이 나의 도움을 필 요로 할 때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까?					
4. 귀하는 젊은 시절에 자원봉사 활동을 경 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5. 귀하는 타인과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 1) 전혀 해결할 의사가 없다 2)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3) 법적으로 해결한다 4) 내 입장을 포기한다 5) 몸싸움을 한다
6) 기타(_____)

6. 귀하는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 1) 전혀 모른 척 한다 2) 눈인사 정도만 한다
3) 인사치레만 한다 4) 적당히 대화 한다
5) 빈번하게 만남의 기회를 가진다

7. 귀하는 내 입장과 다른 다양한 타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합니까?

- 1) 전혀 이해할 생각이 없다 2) 별로 이해할 생각이 없다

- 3) 보통이다 4)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한다
5) 거의 이해하려고 한다

IV.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

지역사회 활동은 자문위원, 선도위원, 각종 문화행사, 각종 구호활동을 의미합니다. 체육 동호회나 취미활동 등은 1번 문항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1. 귀하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인간관계가 수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1) 25명 이하 2) 26 ~ 50명 3) 51 ~ 75명
4) 76 ~ 100명 5) 101명 이상
2. 귀하는 서로의 고민거리를 거부감 없이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보통이다 4) 많다 5) 매우 많다
3. 귀하는 각종 다양한 인간관계의 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1)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많이 참여한다 5) 매우 많이 참여한다
4.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보통이다
4) 많다 5) 매우 많다

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활동의 경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없다 2) 1 ~ 5번 3) 6 ~ 10번
- 4) 11 ~ 15번 5) 16 ~ 20번 이상

V. 인구통계학적 특성

1. 귀하의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55 ~ 60세 미만 2) 61 ~ 65세 3) 66 ~ 70세
- 4) 70 ~ 75세 5) 75세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남성 2) 여성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 5) 대졸 이상

4. 귀하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300만원 이상
- 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3)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4)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5)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6) 50만원 미만

5. 현재 거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 () 구, 경기도 ()시

6. 어르신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불교 2) 기독교 3) 천주교 4) 유교 5) 없다 6) _____



Abstract

The Effects of Volunteer Activity on Social Capital Formation

Kim, Young Ok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Volunteer Activity is a representative form of social activities and involvement. Throughout history, the community has been short in welfare resources. Promoting various social groups to participate in volunteer work was necessary. In particular, encouraging active involvement of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people can help relieve many problems. Specifically, their participation can not only reinforce the community's welfare system but also improve their own living standards.

Since volunteer activity has substantial value as a form of civic involvement in social participation of the mid-aged and old people in this aging society, facilitating the volunteer activity with their social capital will have tremendous political value. This is because the civic participation plays a positive role in building of the social capital. In case of Korea, where the experience of the civic society falls short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western countries, the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volunteer activity can rather become a triggering detonator to build social capitals. The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volunteer activity can work as an cornerstone that can make social capital accumulation possible.

In this study from the same context as aforementioned,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effects of the volunteer activities of the mid-aged people and elders on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The results will help derive implications in terms of policy and system for facilitating future volunteer activity of these people. In particular, this study had selected 3 variables; trust, norms of reciprocity and network based on the findings of precedent studies, which are th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lso, the study performed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volunteer activity on those 3 social capital variables.

The study conten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discusses on theoretical basis through studying literatures for the concept, significance and relationship of volunteering and social capital. And then, based on such theoretical discussion, it derives conceptual diagram and hypothesis regarding the effects that volunteer activities of the mid-aged people and the elders have on the social capital, which i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o identify.

Secondly, it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volunteer activity being performed by these people in Korea and compares the result to those of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it analyzes various statutes and systems of Korea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volunteer activity which is

followed by discussions on the limits that the systems have.

Thirdly, a survey is in progress for empirical analysi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ir volunteer activities on the social capital.

In this study, the frequency and the period of volunteer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status are chosen a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the social capital is classified into three dependent variables; trust, norms of reciprocity and network. With such conceptual schematic diagram, empirical analysis is performed on the effects of these volunteer activity on the three variables through the path analysis in use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well a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astly, it discusses about limits that systematic or political factor that may restrain mid-aged and elder Koreans to volunteer in the future. Likewise, it discusses implications on political or systematic improvement measures to facilitate the volunteer activities of the mid aged to old people in the future.

The analyses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irst, people in the age range from 61 to 65 are the most active participants. It seemed that these people participate in order to make best of their knowledge and skills rather than disregard them. Nonetheless, it was also identified that their participation rate declined due to such as health issues as they were getting older.

Secondly, the most numbered motives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y was self-motivation. That means, the highest proportion of participants joined in the volunteer activity was those with altruistic motivation. Following after altruistic motivation, the second largest

proportion of participants was those who were involved in regular service activities of organizations in which they had membership. This finding can be deemed as implications for the activities of groups whose members are the mid aged to old people. Such involvement needs more encouragement because volunteer activity as a group has larger accessibility than performing it alone since individual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y can be hindered by difficulties such as lack of information.

Thirdly, for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y, 2~4 times a month ranked the highest followed by response of 2~3 times per week. Meaning, most of the mid aged to old people was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y once a week or more.

Moreover, more than half of entire respondents showed they have been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y over 2 years. This enables to identify that volunteer activity is difficult for people to begin but once they were involved in it, they showed continuity in their participation.

In addition, the areas for volunteer activity became quite diversified. The area with highest ratio of participation was assistance for leisure and recreational activities, yet those mid aged to old people participated in Home Visit Welfare Service was also competitively large numbered. From this finding, it is considered some type of support measures to expand volunteer activities onto new areas such as the Aged to Aged Care.

Lastly, for motive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y, the largest number answered as to spend their spare time with meanings and fulfillment. This result supports the findings of precedent exiting

studies that volunteering is one of means for the elderly people to spend their spare time and to let them have pride and high self-esteem as members of the society with sense of continual sense of belongings. More than 80% of respondents to this study had answered for the satisfaction level of volunteer activity saying “satisfying” and “satisfying very much” This enables to infer the positive effects of volunteer activity on the participants.

Comparing the Social Capital Building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the mid aged to the old in volunteer activity, following implications were brought up.

First of all, it was presented as the mid aged to old participants in volunteer activities have higher level of social capital in comparison to those non-participants of the same ages.

When compared the index of social capital owned by the mid aged to old participants with that of non-participants, it was presented that the social capital of the former have higher level from nearly all items, than the latter.

Second of all, the mid aged to old participants in volunteer activities were identified to have accomplished higher level building of social capital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entire population nationwide. The result presented that the mid aged to old people have more positive attitude and higher level of affection towards our society than general population of Korea.

Thirdly, the mid aged to old people participating in volunteer have shown higher level of trust in their families. However, they showed lower level of trust in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and the state

agencies. In addition, they were no different in terms of the interest in the community activities.

Lastly, it was identified that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y has significant effects on all items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lso by having the period and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y as independent variables, it was identified that the volunteer activity has higher effects than other factors.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Modeling for network and interpersonal trust, there had more positive effects on recognition of the interpersonal trust and the network when the frequency and the length of participation increased more. The conclusion that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y by the mid aged to old peopl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network, that the period of the mid aged to old people's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y w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interpersonal trust and that the period of the mid aged to old people's participation may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network are considered as material findings of this study

Meanwhile, for trust in the state agency and the network, the discussion that the participants with altruistic motivation would have higher level of social capital in comparison to those without altruistic motivation when categorized the motives of the mid aged to old people's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y into altruistic motivation and self-interested motivation, would be applicable to limited extent in general.

Keywords: Volunteer Activity, Social Capital, Social Participation